

2006 **01·02** vol.65

특허정보분석 고급 전문학술지
특허는 재산 · 기술은 힘 · 정보는 생명

Patent 21

신년사

특 집

- 한국의 특허동향 2005

PATINEX

- USPTO의 특허통계

상표동향보고서

- 먹는 즐거움?? 먹는 두려움!!

해외전시회 참관기

- 2005 EA(Enterprise Architecture) Conference를 참관하고
- FEMW 2005 포럼 참관기

주요 해외 IP 동향

KIPI NEWS

특허정보조사

(Patent Information Service - Search & Analysis)

기술개발의 첫걸음입니다.

● 선행기술조사서비스

전 세계 특허/비특허 문헌을 조사·분석하여 조사보고서(search report)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출원 시 선행출원 유무의 확인, 경쟁사의 기술동향조사, R&D 방향 설정 및 중복투자 방지, 특허분쟁 방지 및 대응에 활용

- 관련 서비스

- ▶ 특허성 조사(patentability search)
- ▶ 기술정보조사
- ▶ 무효심판조사
- ▶ 침해자료조사
- ▶ 벤처기업확인용 선행기술조사

● 특허맵(Patent map) 서비스

특허정보에 포함되어진 항목(출원인명, 국제특허분류기호, 발명을 구성하는 키워드 등)을 추출하여 분류 → 분석 → 가공하여 이를 도표·도식화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기술의 발전추이, 미래 기술흐름의 예측 등을 가능하게 하여 체계적인 특허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특허(IP)컨설팅 / 교육지원

특허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SMEs) 등을 위해 KIPR의 전문 인력이 특허관리, 선행기술조사 등에 관한 기법 컨설팅 / 교육지원

FORX The Forecast of
Reliable Experts

신청
상담
안내

▶ 선행기술조사서비스

신청 및 접수 : 유현주 02-3452-8144(교590)

일반 상담 : 고준호 02-3452-8144(교524)

팩 스 : 02-3453-2966

▶ 특허맵 서비스 / 특허컨설팅 / 교육지원

신청 및 상담 : 배경완 02-3452-8144(교531)

<http://www.forx.org>

2006. **01 · 02**월호 vol.65



Contents

- 신년사**
02 신년사
- 특집**
04 한국의 특허동향 2005
- PATINEX**
23 USPTO의 특허통계
- 상표동향보고서**
30 먹는 즐거움?? 먹는 두려움!!
- 해외전시회 참관기**
36 2005 EA(Enterprise Architecture) Conference를 참관하고
40 FEMW 2005 포럼 참관기
- 주요 해외 IP 동향**
46
- KIPI NEWS**
48

新年辭



다사다난했던 지난 을유년 한 해 동안 저희 한국특허정보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댁내 두루 평온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한국특허정보원은 고객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국내 지식재산정보 연구 및 저변 확대 보급에 크게 이바지하여 그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한국서비스대상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 등 서비스 극대화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특허정보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창립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창출을 통한 변혁을 이루어내는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중심의 서비스 발굴, ▲양적·질적 내실을 통한 성장 도모, ▲글로벌 시대를 향한 세계 초일류 특허정보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도약을 다짐하였습니다.

KIPRIS 특허정보 검색기능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성능 장비를 도입하고, 꾸준히 향상된 검색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고객 여러분의 이용편의를 더욱 증진시켰습니다.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또한 특허정보조사분석의 고품격 서비스를 위해 특허정보조사, 특허통계분석, 특허기술의 가치평가, 기술이전 및 컨설팅, TPDB서비스 등의 토털서비스인 FORX 서비스(www.forx.org)를 더욱 향상 발전시켜 고객 여러분의 기술개발 도우미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특허청 용역사업의 완벽한 수행으로 특허청의 특허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증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와 발전은 저희 한국특허정보원을 아껴주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저희 한국특허정보원 임직원 일동은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저희 한국특허정보원은 보다 새롭고 정확한 고품격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며, 2006년에도 더욱 더 매진하여 세계적인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6년 1월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유 영 기

한국의 특허동향 2005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전략팀

1. 개요

정보 및 지식사회로서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선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있어서 효과적인 산업정책의 수립과 새로운 기업전략 수립,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통계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책수립자, 기업 의사결정권자, 연구원 및 학자들의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산업동향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산업통계의 수집·분석·공표 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¹⁾. 특히 산업통계 중 특허통계정보는 산업 및 과학기술활동의 혁신지표로서 국가, 지역, 기술, 기업 등 발명의 성과를 반영하고, 기술의 확산 및 R&D의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정책정보로써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허통계정보가 매우 미흡한 상태로 인해 과학기술전략 또는 연구개발 정책 수립시 통계지표의 활용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전문가의 의견(peer review)에만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정책연구를 위해 2002년 5월에 국가별, 기술별 특허통계를 작성한 『특허경쟁정보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특허정보 활용체계 구축과 특허정보 인프라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02년 7월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특허청(KIPO, www.kipo.go.kr : 청장 김종갑)과 한국특허정보원(KIPI, www.kipi.or.kr : 원장 유영기)은 2002년부터 국내에 출원공개 및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통계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매년 특허통계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2005년 9월에 『한국의 특허동향 2005』를 발간하였다.

2002년에 발간된 『한국의 특허동향 2002』에서는 특허통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통계데이터의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기초데이터 확보를 통해 오류데이터를 정비하고 분석필드를 구체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분석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정비한 필드는 국가코드, 출원인 코드 통일화(unification), 국제특허분류, 지역별 명칭 통일화 및 세분화작업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출원인은 제1출원인을 기준으로 국제특허분류는 주분류만 정비를 하였다. 또한 출원인을 연구개발주체별로 구분하여 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개인으로 나누었고, 기업을 다시 거래소상장기업, 코스닥·제3시장 등록기업 및 기타기업으로, 공공기관은 정부,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시험연구소로, 대학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분하여 통일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지역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2개 기초자치단체로 세분화하였다. 이렇게 정비한 분석필드를 통해 국내 주요 출원인 분석과 지역별 특허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IQ지수를 도입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3년에 발간된 『한국의 특허동향 2003』에서는 2002년에 출원공개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였고, 국내에 출원되어 등록된 36만여 건의 데이터를 입수하여 정비를 수행하였다. 분석항목의 다각화를 위해 모든 출원인과 국제특허분류는 부분류까지 확대

1) 강대일, Food Journal, p33 (2005. 02.)

정비하였고, 청구항수 및 기술이전 관련정보를 정비하여 특허의 질(Quality)을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또한 분석보고서를 4권으로 분리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하였고 분석지표 역시 특허통계에 활용 가능한 모든 지표를 도입하여 특허분석에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적용해 보았다. 여기에는 산업의 시장집중도를 분석하는 HHI (Hirschman-Herfindahl Index), 기술의 의존도를 평가하는 DR(Dependency Rate), 반도체 경기 사이클과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과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선행경지표로서의 특허의 역할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4년 12월에 발간된 『한국의 특허동향 2004』는 발명자 정보를 세분화하여 발명활동의 혁신거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 9월에 발간된 『한국의 특허동향 2005』는 2004년까지 수행했던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분석범위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미공개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최신의 특허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민법 32조(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의 규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연구조합, 학회 및 협회 등)을 민간비영리기관을 규정하였으나, 이 중 특별법에 의해 생긴 기관 중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일부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재분류하여 특허동향을 분석하였다. 본고는 『한국의 특허동향 2005』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2. 분석 틀

2.1 분석기준 및 범위

이번 『한국의 특허동향 2005』에서는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7판을 이용하여 WIPO에서 정한 32개 기술분류를 이용하였으며, 연구개발주체의 구분, 행정구역에 대한 분류기준은 『한국의 특허동향 2002』, 『한국의 특허동향 2003』 및 『한국의 특허동향 2004』에서 사용되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표1. WIPO기준 32개 기술분류표(7판기준)

대분류 (Section)	구분	중분류 (Subsection)	소분류 (Class)	기술 설명
생활필수품 (A)	1	농수산	A01(A01N제외)	농업, 임업의 농기구, 원예, 축산 등
	2	식료품	A21~A24	제빵, 유제품, 사료, 담배제조 등
	3	가정용품	A41~A47	의복, 신발, 가정용구 등
	4	의료/레저	A61~A63(A61K제외)	진단, 간호용품, 수술장비, 원구류, 스포츠용품 등
	5	의약	A61K(Subclass)	의약품, 치료용, 화장품 제제
운수 (B)	6	분리/혼합	B01~B09	오염물 분리, 화학·물리 실험장치, 노출 등
	7	금속가공	B21~B23	금속 압연, 선재 가공, 단조, 주형, 밀링 등
	8	비금속가공	B24~B32(B31제외)	연마제, 부속공구, 플라스틱·목재·석재 성형 등
	9	인쇄	B41~B44	프린터, 인쇄, 책, 필기용기구 등
	10	운송/포장	B60~B64 · B65~B68	자동차, 철도, 자전차, 선박, 항공, 물품포장, 엘리베이터 등
	11	초미세기술	B81~B82	마이크로·나노기술 등
화학 (C)	12	무기화학/수처리	C01~C05	비금속, 알카리 금속 화합물, 폐수처리, 비료 등
	13	유기화학	C07 · A01N(Subclass)	유기화학 장치, 비환화합물, 농약 등
	14	고분자	C08	다당류, 고무처리, 고분자 화합물 등
	15	석유/정밀화학	C09~C11	페인트, 접착제, 가스, 석유처리, 주류제조 등
	16	바이오	C12~C14	효소학, 미생물학, 발효학, 당의제조, 피혁 등
	17	아금/도금	C21~C23 · C25 · C30	철제조, 금속제조, 도금 등
섬유 (D)	18	섬유	D01~D07	섬유처리, 인조사, 직물, 봉제, 세탁기, 건조기, 염색 등
	19	제지	D21, B31	종이제조, 펄프 상자, 포대류 등
건축·토목 (E)	20	건설	E01~E06	도로, 교량, 상하수 설비, 건축구조 등
	21	광업	E21	지중굴착, 채광, 채석 등
기계 (F)	22	엔진/펌프	F01~F04	터빈, 내연소 기관, 펌프 등
	23	기계부품	F15 · F16 · F17	브레이크, 클러치, 밸브, 관, 윤활 등
	24	조명/가열	F21~F28	조명장치,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등
	25	무기/폭발	F41 · F42 · C06	총기류, 화학, 폭발물 등

대분류 (Section)	구 분	중분류 (Subsection)	소분류 (Class)	기술 설명
물 리 (G)	26	측정/광학	G01~G03	측정장치, 안경, 사진, 필름 등
	27	컴퓨터	G04~G08	시계, 제어계, 계산기, 컴퓨터, 자판기, 교통제어장치 등
	28	정보매체	G09~G12	표식, 광고, 악기, 동적·정적 저장매체 등
	29	원자력	G21	원자로, 방사선 등
전 기 (H)	30	전기/반도체	H01·H02·H05	케이블, 전자부품, 반도체 장치, 발전기, PCB기판 등
	31	전자/통신	H03·H04	증폭기, 유무선 통신, 텔레비전 등
	32	기타		

분석기간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특허출원활동이 시작되는 1990년대 이후의 특허동향을 살펴보고자 199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특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출원 및 공개된 특허데이터를 한정하였으며, 미공개권이 있는 2003년과 2004년에 출원된 특허는 누락된 서지정보가 있는 특허를 제외하였다.

표2. 연도별 통계분석 데이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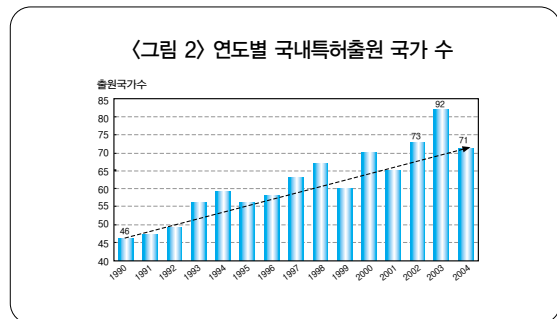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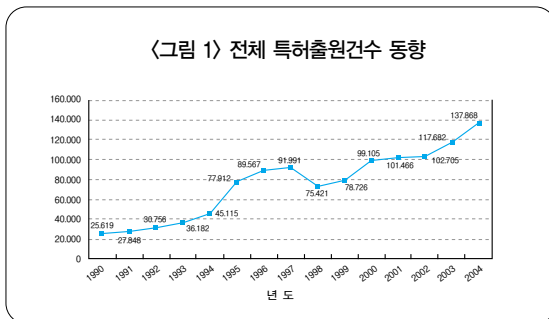
구 분	데이터 필드	출 원				등 록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번호 관련	출원번호	○	○	○	○	×	○	○	○
	출원년도	○	○	○	○	×	○	○	○
	공개번호	○	○	○	○	×	○	○	○
	공개년도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등록년도	-	-	-	-	×	○	○	○
권리자 관련	국가코드	○	○	○	○	×	○	○	○
	출원인	○	○	○	○	-	-	-	-
	복수출원인	×	○	○	○	-	-	-	-
	출원인코드	○	○	○	○	×	-	-	-
	출원인주소지	○	○	○	○	×	-	-	-
	소유권자	-	-	-	-	×	○	○	○
	복수소유권자	-	-	-	-	×	○	○	○
	소유권자코드	-	-	-	-	×	○	○	○
기술 관련	소유권자주소지	-	-	-	-	×	○	○	○
	IPC 주분류	○	○	○	○	×	○	○	○
우선권 관련	IPC 부분류					×	○	○	○
	우선권주장번호	○	○	○	○	×	○	○	○
	우선권주장국가	○	○	○	○	×	○	○	○
청구항 관련	우선권주장년도	○	○	○	○	×	○	○	○
	공개청구항수	×	×	○	○	-	-	-	-
	등록청구항수	-	-	-	-	×	○	○	○
기술이전 관련	권리이전번호	-	-	-	-	×	×	○	○
	권리이전양수인	-	-	-	-	×	×	○	○
	권리이전설정일	-	-	-	-	×	×	○	○
	실시권번호	-	-	-	-	×	×	○	○
	실시권양수인	-	-	-	-	×	×	○	○
	실시권설정일	-	-	-	-	×	×	○	○
발명자	발명자	×	×	○	○	×	-	-	-
	발명자국적	×	×	○	○	×	-	-	-
	발명자주소지	×	×	○	○	×	-	-	-
기 타	심사청구일자	×	×	○	○	×	-	-	-
	등록소멸일자	-	-	-	-	×	×	○	○
	당사자계 심판	×	×	×	○	×	×	×	○
	국제출원여부	○	○	○	○	×	○	○	○

주) 1. 공개 및 등록 특허 데이터는 공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주) 2. "-" 는 관련없음, "x" 는 분석 불가능, "o" 는 분석 가능으로 구분.

3.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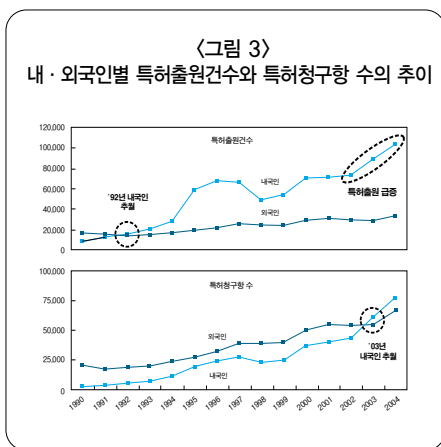
3.1 내·외국인의 특허동향

한국에 출원된 특허는 1990년에 약 25,000여 건이며 이후 증가하여 1997년에 약 90,000여 건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 약 18,000여 건이 감소한 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04년에 1990년 특허의 5.4배 수준인 약 137,000여 건의 특허가 출원되었다. 특허출원국가 역시 1990년 46개국에서 2003년 82개 국으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도에는 71개 국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출원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특허시장은 특허출원건수와 특허출원 국가 수 모두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은 1990년대 중반인 1995년~1997년간 출원거품현상²⁾으로 인해 특허출원이 급증하였으나,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꾸준한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2003년과 2004년엔 다시 특허출원 급증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의 특허출원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1990년에 16,642건의 특허출원과 비교해서 2004년에 33,843건으로 2배정도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에 있어서 발명의 수를 나타내는 청구항 수의 동향을 내·외국인별로 살펴보면, 내국인이 외국인을 추월한 시기는 2003년 이후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출원건수가 추월한 시기인 1992년보다 11년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내국인은 1990년대부터 특허출원이 활발하기 시작해지면서 1990년~1994년 동안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은 32.9%의 매우 높은 연평균 증가율³⁾을 보인 반면 동기간 동안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은 0.6%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1999년 동안 내·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4.1%와 7.4%로서, 내국인은 1995년~1997년 동안 특허출원이 급증하였으나, 1998년에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 인해 연평균 증가율이 1990년대 초반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외국인은 1990년대 초반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2004년은 내국인이 13.8%, 외국인이 6.8%로 꾸준하게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내국인의 특허출원은 〈그림 3〉에서 2001

2) 『한국의 특허동향 2004』 출원인별, pp.15~17

3) 연평균 증가율은 기하평균을 이용하였으며,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음

$G(\%) = \left[\frac{(1+g_1)(1+g_2)\dots(1+g_n)}{n} - 1 \right] \times 100$ 구간 : n, 각 구간의 증가율 : g, 연평균증가율 : G

〈그림 4〉 연도별 특허출원건수와 연구개발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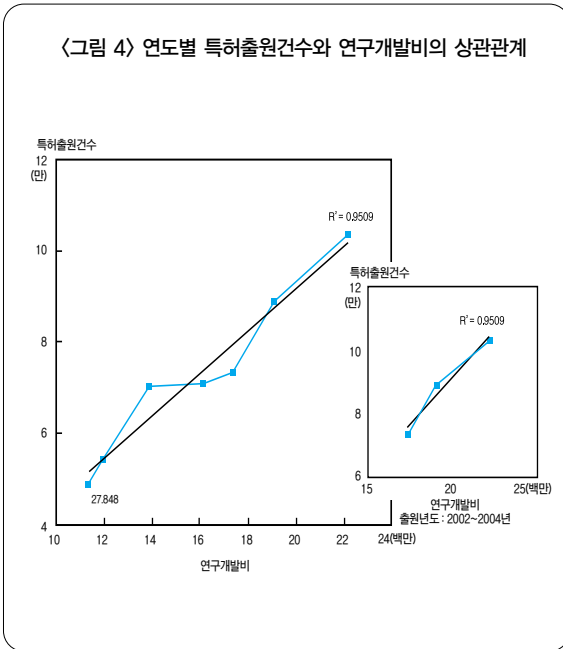


표3. 내·외국인의 구간별 특허출원건수와 연평균 증가율

기술분야	1990~1994		1995~1999		2000~2004	
	출원건수	연평균 증가율	출원건수	연평균 증가율	출원건수	연평균 증가율
내국인	86,881건	32.9%	296,334건	14.1%	406,977건	13.8%
외국인	78,569건	0.6%	115,283건	7.4%	151,284건	6.8%
전 체	165,450건	15.2%	411,617건	11.8%	558,261건	11.8%

표4. GDP, R&D 및 특허출원건수의 연평균 증가율

구 분	1998~2004	2002~2004
GDP	6.1%	3.9%
R&D	11.8%	13.2%
특허출원건수	13.3%	18.8%

표5. 내·외국인의 등록특허의 현황

구 분	1990년~1997년			1990년~2002년
	등록률	생존율	수 명	권리분쟁률
내국인	50.1%	66.1%	8.2년	0.26%
외국인	58.8%	77.9%	9.9년	0.11%
계	53.0%	70.5%	8.7년	0.21%

년과 2002년에 출원정체현상을 보였으나, 2003년과 2004년에 급증세를 보이며 13.8%의 비교적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 특허출원건수와 연구개발비의 상관관계를 〈그림 4〉에서 살펴보았다. 연도별 특허출원건수와 연구개발비간의 결정계수⁴⁾는 0.95로서 내국인의 특허출원은 연구개발비 투입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02년~2004년 동안 연구개발비와 특허출원 건수간 결정계수는 0.96으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3년 이후 내국인 특허출원 급증은 2000년 이후 증가한 연구개발투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1997년 간⁵⁾ 출원된 특허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록공고된 특허를 대상으로 등록률, 등록특허의 생존율 및 특허수명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인 각각 58.8%, 77.9% 및 9.9년으로서 내국인의 등록률 50.1%, 등록특허의 생존율 66.1% 및 특허수명 8.2년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0년~2002년간 출원되어 2004년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발생한 특허의 비율을 권리분쟁률⁶⁾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권리분쟁률은 0.11%로서 내국인의 0.26%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주요 국가별 특허동향

다출원국 상위 10개 국가와 중국을 대상으로, 1990년~2004년 동안 5년씩 3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특허출원건수 및 연평균 증가율을 〈표 5〉에 나타냈다.

4) 종속변수인 y의 변동이 독립변수인 x의 변동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수치로서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양자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함
 5) 특허는 심사청구일자 순으로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함.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률은 2004년을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 5년과 심사청구후 평균심사처리기간 2년을 감안하여 볼 때 1997년까지 출원된 특허만 통계적인 의미를 지님
 6) 권리분쟁률은 각 국가별 또는 연구주체별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 8월 25일까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발생한 특허의 비율을 나타냄. 이를 통해 각 국가별 또는 연구주체별 기술혁신활동의 권리의 안정성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일본, 미국 및 독일은 다출원 2위~4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대만과 중국은 최근 5년(2000년~2004년)간 각각 19.9%, 25.4%와 42.9%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면서 다출원 순위가 각각 5위, 10위 및 19위로 前구간에 대비하여 순위상승하였다. 상기 국가의 2004년도 출원증가율은 각각 143.5%, 40.7% 및 48.8%로서 매우 높은 출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중국은 2004년에 다출원 국가 18위로 순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위스는 2000년~2004년 동안 7.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다출원 국가 7위로 순위 상승하였으며, 이는 특히 2003년과 2004년에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6. 주요 국가의 구간별 특허출원 동향

순 위	1990년 ~ 1994년			1995년 ~ 1999년			2000년 ~ 2004년		
	국가명	출원건수	연평균 증가율	국가명	출원건수	연평균 증가율	국가명	출원건수	연평균 증가율
1	대한민국	86,881	32.9%	대한민국	296,334	14.1%	대한민국	406,977	13.8%
2	일본	34,135	2.0%	일본	49,619	4.8%	일본	66,394	8.1%
3	미국	23,423	-0.4%	미국	33,273	8.4%	미국	40,347	4.1%
4	독일	6,694	1.8%	독일	11,517	12.0%	독일	13,468	-0.2%
5	프랑스	2,752	-5.0%	프랑스	3,795	9.6%	네덜란드	6,718	19.9%
6	네덜란드	2,286	-10.8%	네덜란드	3,227	17.3%	프랑스	5,309	7.9%
7	영국	2,199	-2.4%	영국	2,833	3.8%	스위스	3,001	7.9%
8	스위스	2,126	-0.6%	스위스	2,438	4.6%	영국	2,665	-1.6%
9	이탈리아	1,103	-4.3%	스웨덴	1,621	-0.8%	스웨덴	2,490	2.4%
10	스웨덴	580	18.2%	이탈리아	1,130	20.1%	대만	1,391	25.4%
	중국 (순 위)	43 (26)	-21.7%	중국 (순 위)	90 (25)	46.1%	중국 (순 위)	326 (19)	42.9%

표7. 주요 국가의 연도별 특허출원건수 및 증가율

국 가 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네덜란드	947	1,318	1,712	798	1,943(5위)
	20.6%	39.2%	29.9%	-53.4%	143.5%
스 위 스	540	570	520	636	735(7위)
	7.4%	5.6%	-8.8%	22.3%	15.6%
대 만	180	232	252	302	425(10위)
	31.4%	28.9%	8.6%	19.8%	40.7%
중 국	34	40	53	80	119(18위)
	70.0%	17.6%	32.5%	50.9%	48.8%

〈표 7〉은 1990년~2004년 동안 외국인 중 다출원 상위 8개국의 주요 출원인별 구간별 출원건수, 점유율 및 연평균 증가율의 동향을 나타내었다.

일본 기업 중 일본의 다출원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1994년에 27.1%였으나 2000년~2004년에 21.0%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특허시장에 다양한 일본기업이 출원하면서, 주요 5개 기업의 출원집중도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1994년 동안 일본기업 중 다출원 4위였던 Matsushita는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2004년 구간에서 다출원 2위로 순위 상승하며 5.5%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Toshiba는 1990년~1994년에 일본기업 중 다출원 1위였으나 특허출원이 점차 감소하여 2000년~2004년도에는 1,948건으로 다출원 순위 5위로 떨어지면서 점유율도 2.9%로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의 다출원 상위 5개 출원인 중 IBM은 1990년~1994년에 596건으로 다출원 4위에 머물렀으나 이후 1위로 올라서면서 2000년~2004년에 4.4%의 점유율을 보여주었다. 3M은 점차 그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2000년~2004년에 17.6%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휴대폰 등을 생산하는 Motorola는 1990년~1994년 718건으로 다출원 1위를 차지하였는데, 1995년~1999년에 연평균 증가율이 -6.2%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0년~2004년에 11.0%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독일의 Robert Bosch는 1990년~1994년에 422건으로 6.3%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다출원 4위를 차지하고, 1995년~1999년에 점유율 10.7%를 차지하면서 다출원 2위에 올라섰고, 2000년~2004년에는 10.6%(1,421건)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다출원 1위를 차지하였다. 세계적인 종합화학회사 중 하나인 Hoechst는 1990년~1994년에 13.3%(891건)로 다출원 1위를 차지하였는데, 1999년 프랑스의 룡프랑로라사와 합병하여 Aventis로 바뀐 이후 특허출원이 크게 감소하였다.

네덜란드의 경우 한국내 네덜란드 전체 특허출원의 61.8%를 Philips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도 네덜란드의 한국 내 특허출원은 Philips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 및 제약회사인 AKZO는 1990년~1994년에 191건으로 다출원 4위를 차지하였는데, 꾸준한 증가세로 2000년~2004년에는 251건으로 Philips에 이어 다출원 2위에 올랐다.

프랑스에서 1999년부터 특허출원을 시작한 멀티미디어그룹인 Thomson Licensing은 2000년~2004년 동안 1,252건(23.6%)을 출원하여 다출원 1위에 오르고, 연평균 증가율도 139.4%를 나타내며 아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topina⁷⁾는 Roreal에 이어서 다출원 3위에 올랐다.

영국 주요출원인의 특허출원은 1990년~1994년도에 30.0%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점차 하락하여 2000년~2004년 15.2%로써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Glaxo Smithkline Beecham⁸⁾은 구간별 특허출원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점유율도 1990년~1994년 7.7%에서 2000년~2004년 9.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STRAZENECA⁹⁾는 주 연구활동이 연구소가 있는 스웨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본사가 있는 영국에서 ASTRAZENECA의 출원건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출원인 중 전체 다출원 1위는 Novartis¹⁰⁾지만, 1990년~1994년 39.1%에서 1996년 합병 이후, 1995년~1999년 20.1%, 2000년~2004년에 9.2%로 점차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반면 Novartis에서 독립한 Ciba Specialty Chem은 1995년~1999년 77.3%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면서 2000년~2004년 344건(11.5%)으로 Hoffman Laroche에 이어 다출원 2위에 올랐다.

스웨덴에서 다출원 1위는 LM Ericsson으로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출원 2위인 ASTRAZENECA¹¹⁾는 1995년~1999년에 193건(11.9%)에서 2000년~2004년 453건(18.2%)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 중장비업체인 Volvo Construction Equipment는 1999년부터 출원하여 2000년~2004년에 178건(7.1%)을 출원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다출원 3위에 올랐다.

7) Atopina는 2000년 4월 토털피나와 엘프아토켄이 합병하면서 생긴 회사로 두 회사의 출원건수를 합산하여 분석하였음

8) Glaxo Smithkline Beecham은 1989년 Smithkline과 Beecham 합병한 후, 2000년에 Glaxo와 Smithkline Beecham이 합병을 함

9) ASTRAZENECA는 1998년 9월 영국의 ZENECA가 스웨덴의 ASTRA를 인수 합병하여 만들어졌고, 본사는 영국 런던에, 연구개발센터는 스웨덴에 위치

10) Novartis는 1996년 CIBA-GEIGY와 SANDOZ가 합병을 함

11) ASTRAZENECA의 본사는 영국에 있고, 특허출원활동이 활발한 연구소는 스웨덴에 있어서 합병된 후, 연구소가 소재한 스웨덴의 국적으로 출원된 것은 ASTRA의 건수와 합산하여 특허동향의 분석을 실시함

표8. 다출원 상위 8개국 주요 출원인의 구간별 특허출원동향

국 가	주요출원인	1990년 ~ 1994년			1995년 ~ 1999년			2000년 ~ 2004년		
		출원건수	점유율	연평균 증가율	출원건수	점유율	연평균 증가율	출원건수	점유율	연평균 증가율
일 본	SONY	2,420	7.1%	9.7%	3,276	6.6%	5.5%	3,867	5.8%	4.3%
	MATSUSHITA	1,209	3.5%	-2.5%	2,069	4.2%	12.6%	3,663	5.5%	11.4%
	Toshiba	2,906	8.5%	-10.9%	2,047	4.1%	-8.6%	1,948	2.9%	2.7%
	NEC	810	2.4%	87.4%	3,755	7.6%	18.1%	2,040	3.1%	-34.5%
	Hitachi	1,898	5.6%	-2.4%	1,970	4.0%	0.4%	2,396	3.6%	8.5%
미 국	IBM	596	2.5%	26.7%	2,434	7.3%	20.1%	1,758	4.4%	-10.5%
	3M	677	2.9%	11.8%	988	3.0%	-7.7%	1,302	3.2%	17.6%
	Motorola	718	3.1%	4.9%	1,102	3.3%	-6.2%	820	2.0%	11.0%
	P&G	326	1.4%	1.5%	1,131	3.4%	30.8%	786	1.9%	-22.9%
	Dupont	701	3.0%	-15.0%	563	1.7%	2.3%	801	2.0%	8.8%
독 일	Robert Bosch	422	6.3%	-7.7%	1,235	10.7%	33.1%	1,421	10.6%	-13.8%
	BASF AG	502	7.5%	-11.5%	972	8.4%	22.1%	1,094	8.1%	-0.7%
	Siemens	215	3.2%	7.5%	1,299	11.3%	41.6%	757	5.6%	-15.7%
	Bayer AG	584	8.7%	6.1%	768	6.7%	3.6%	888	6.6%	-28.0%
	Hoechst AG	891	13.3%	-2.4%	441	3.8%	-49.2%	21	0.2%	-100.0%
네덜란드	PHILIPS	1,140	49.9%	-13.1%	1,780	55.2%	20.6%	4,644	69.1%	24.4%
	MAATSCHAPPIJ	276	12.1%	-6.6%	293	9.1%	0.8%	218	3.2%	0.8%
	AKZO NOBEL	191	8.4%	3.2%	199	6.2%	1.7%	251	3.7%	4.0%
	Unilever	202	8.8%	-24.5%	168	5.2%	27.2%	132	2.0%	-6.2%
	DSM	37	1.6%	23.6%	130	4.0%	48.2%	135	2.0%	-24.8%
프랑스	통스 라이센싱				6	0.2%		1,252	23.6%	139.4%
	로레알	32	1.2%	14.4%	333	8.8%	64.1%	343	6.5%	-23.7%
	아토피나	106	3.9%		246	6.5%	-1.6%	204	3.8%	-7.8%
	생고뱅비드라지	88	3.2%		75	2.0%	5.7%	139	2.6%	7.2%
	앵스띠뽀프랑세뒤베뜨롤	34	1.2%	28.8%	157	4.1%	25.3%	204	3.8%	-7.8%
영 국	클락소스미스클라인비참	170	7.7%	-7.5%	193	6.8%	6.9%	245	9.2%	-4.1%
	IMPERIAL CHEM.	310	14.1%	-28.3%	113	4.0%	-9.0%	37	1.4%	-27.5%
	BRITISHI TELECOM	43	2.0%	10.7%	183	6.5%	-10.2%	27	1.0%	13.2%
	ASTRAZENECA	63	2.9%	121.3%	165	5.8%	-26.9%	23	0.9%	-100.0%
	BP CHEMICALS	73	3.3%	1.7%	88	3.1%	12.5%	73	2.7%	-6.8%
스위스	NOVARTIS	832	39.1%	-4.5%	489	20.1%	-19.7%	275	9.2%	12.7%
	HOFFMAN LAROCHE	162	7.6%	-8.8%	221	9.1%	18.5%	392	13.1%	7.6%
	CIBA SPECIALTY CHEM	3	0.1%	-100.0%	284	11.6%	77.3%	344	11.5%	4.4%
	NESTLE	56	2.6%	-5.4%	90	3.7%	13.4%	79	2.6%	-9.7%
	ASEA BROWN BOVERI	80	3.8%	43.2%	120	4.9%	0.9%	6	0.2%	-100.0%
스웨덴	LM ERICSSON	134	23.1%	36.5%	569	35.1%	25.7%	620	24.9%	-27.9%
	ASTRAZENECA	44	7.6%	89.9%	193	11.9%	29.9%	453	18.2%	13.4%
	SANDVIK	21	3.6%	49.5%	77	4.8%	21.1%	166	6.7%	30.9%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1	0.1%		178	7.1%	118.7%
	ABB				30	1.9%		49	2.0%	-43.3%

대만은 다출원 상위 5개 출원인이 전체 특허의 10.5% (217건)를 차지하며, 타 국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 반도체 수탁 생산업체로 전환한 UMC (United Microelectronics)는 51건으로 다출원 1위에 올랐으나, 2001년 이후로 출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는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와 Inventec이 지속적인 특허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대만내 최대 편광프리즘 제조업체인 Opti-Max Technology와 디스플레이 업체인 Prime View International사가 각각 38건과 19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대만내 다출원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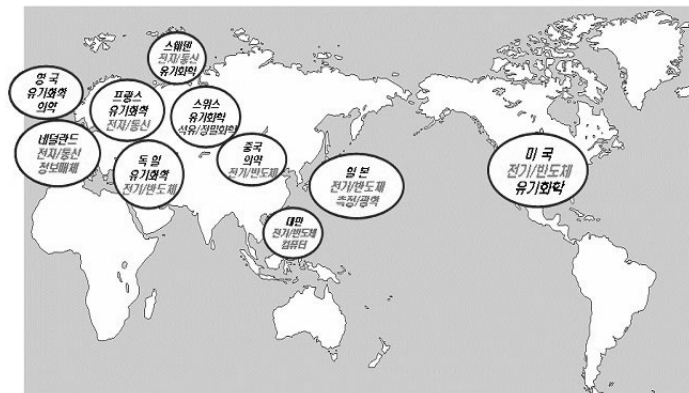
중국은 중국 최대 석유회사인 차이나 페트로-케미칼社만 꾸준히 특허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 꾸준한 특허출원을 한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9. 대만과 중국 주요기업의 특허출원 동향

주요기업		1995년~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대만	UMC	47	4	-	-	-	-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15	4	5	3	6	12
	Winbond Electronics	26	2	2	-	-	2
	Opti-Max Technology	-	-	-	-	-	38
	Inventec	4	-	12	12	5	5
	Prime View International	1	-	1	3	11	19
중국	차이나 페트로-케미칼	7	1	6	8	8	9
	후아웨이 테크놀러지	-	-	3	2	1	5
	China Academy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	-	-	8	-	-
	차이나페트로케미칼	7	1	-	-	-	-
	칭 다오 피티엘 켄	-	-	-	-	4	3

특허활동지수¹²⁾를 이용하여 1990년~2004년 동안 각국에서 한국에 출원한 특허의 특화기술을 살펴본 결과, 일본과 대만 및 네덜란드는 전기/반도체, 전자/통신 등의 IT 관련분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은 전기/반도체와 유기화학 분야 기술이 특화기술이며, 영국, 스위스 및 스웨덴 등은 유기화학 등이 특화기술로 조사되었다.

〈그림 5〉 주요 국가의 특화기술



기준 : 출원년도 '90~2004
다출원국과 대만 및 중국 포함

12) 특허활동지수란 특정 국가가 특정 기술분야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비율이 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을 나타내며,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text{특허활동지수(AI)} = \frac{\frac{\text{특정기술분야의 특정출원인특허수}}{\text{특정출원인특허수}}}{\frac{\text{특정기술분야의 전체특허수}}{\text{전체특허수}}}$$

3.3 내국인의 연구주체별 특허동향

출원년도별 각 연구주체의 출원건수 추이를 <그림 6>에서 살펴보면, 1995년~1997년 동안 발생했던 내국인의 출원거품 및 외환위기 직후의 출원급감은 기업에서만 발생하였고, 공공기관과 대학은 지속적인 출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대학은 2003년에 전년대비 77%의 출원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3년 5월에 개정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대학 내 신설된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허성과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립하면서 대학명으로 출원된 특허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영리기관은 1997년까지 특허출원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7년 이후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내국인의 연구주체 중 특허출원은 기업이 주도하는 가운데 특허출원 1건당 평균 청구항 수는 대학출원이 7.4항으로 연구주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90년~1997년 동안 출원된 특허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록공고된 특허의 비율은 공공기관이 8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생존율 및 특허수명도 공공기관이 각각 71.1% 및 9.4년으로 연구주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비율을 나타내는 특허기술이전율은 공공기관의 경우 4.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개인명의 출원이 1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0년~2002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권리분쟁이 발생한 특허의 비율은 내국인의 연구주체중 대학이 0.02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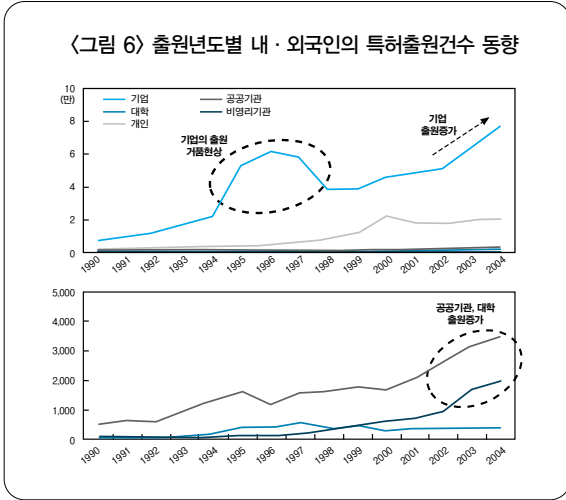


표10. 내국인의 연구주체별 특허스코어 보드

구 분	1990 ~ 2004					1990 ~ 1997			1990 ~ 2002
	출원건수	점 유 율	연 평균 증가율	평 균 청구항수	특허기술이전율	등록률	생존율	수 명	권리분쟁률
기 업	606,089	76.7%	19.1%	5.3	9.2%	49.7%	67.5%	8.2년	0.139%
공공기관	24,913	3.2%	14.6%	6.7	4.4%	87.1%	71.1%	9.4년	0.049%
대 학	7,457	0.9%	35.8%	7.4	4.8%	85.9%	68.9%	9.3년	0.026%
비영리기관	4,441	0.6%	28.2%	4.0	9.3%	65.9%	51.9%	8.3년	0.027%
개 인	147,292	18.6%	19.2%	4.6	19.1%	40.2%	49.4%	7.8년	0.816%
내 국 인	790,192	100%		5.3	10.3%	50.1%	66.1%	8.2년	0.256%

1) 기업의 특허동향

구간별 기업의 다출원인 동향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구간별 다출원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2004년 동안의 출원이 전(前)구간에 비해 감소하였다. 2000년~2004년 동안 LG전자, POSCO 및 삼성SDI의 특허출원은 전(前)구간 대비해 83.3%, 95.2% 및 174.7%로 각각 증가하여 다출원 순위 2위, 5위와 6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LG Philips LCD와 동부아남반도체는 2000년~2004년 동안 각각 7,308건과 5,253건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다출원 7위와 8위를 차지하는 등 다출원 10위권에 새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4년에 삼성SDI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특허출원은 전(前)년 대비 최소 2배 이상 급증하여 다출원 순위 3위와 6위로 순위상승하였으며, 현대모비스와 SK 텔레콤은 2003년과 2004년에 특허출원이 급증하여 2004년에 다출원 상위 10개 기업에 진입하였다.

표11. 구간별 기업 중 다출원인의 특허출원동향

순 위	1990 ~ 1994		1995 ~ 1999		2000 ~ 2004	
	기 업	출원건수	기 업	출원건수	기 업	출원건수
1	삼성전자	13,562	삼성전자	57,215	삼성전자	44,953
2	LG전자	12,363	하이닉스반도체	28,652	LG전자	40,125
3	하이닉스반도체	8,209	대우일렉트로닉스	25,159	현대자동차	19,866
4	대우일렉트로닉스	6,625	LG전자	21,886	하이닉스반도체	17,010
5	현대자동차	1,974	현대자동차	20,847	POSCO	8,825
6	삼성SDI	1,435	기아자동차	17,020	삼성SDI	8,121
7	POSCO	1,251	지엠대우	12,285	LG Philips LCD	7,308
8	코오롱	1,226	POSCO	4,521	동부아남반도체	5,253
9	삼성전기	1,152	삼성SDI	2,956	기아자동차	4,692
10	기아자동차	1,139	KT	2,829	대우일렉트로닉스	4,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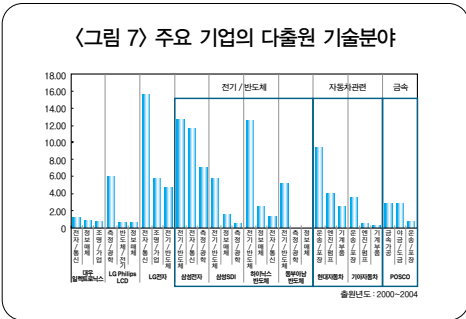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특허출원건수는 1995년~1997년 동안 특허출원거품을 주도하여 1995년~1999년 동안 특허출원건수가 전구간에 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출원거품이 제거되어 2000년~2004년엔 전(前)구간에 대비하여 특허출원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12. 2000년 이후 연도별 주요 기업의 특허출원동향

기 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삼성전자	4,871	6,341	8,007	10,923	14,811
LG전자	6,359	5,598	7,504	9,263	11,401
삼성SDI	819	684	807	1,640	4,171
현대자동차	4,011	4,171	3,995	3,851	3,838
하이닉스반도체	4,263	3,637	3,368	2,678	3,064
대우일렉트로닉스	72	239	140	1,166	2,571
LG Philips LCD	689	992	1,596	2,215	1,816
동부아남반도체	81	483	827	2,121	1,741
현대모비스	11	37	790	1,183	1,213
SK텔레콤	253	396	428	694	1,194

2000년 이후 상위 다출원 10개 기업의 다출원 기술분야를 살펴 보면, 삼성전자, 삼성SDI, 하이닉스반도체 및 동부아남반도체는 전기/반도체에 각각 12,666건, 5,724건, 12,653건 및 5,067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WIPO 기준 32개 기술분야 중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다출원 상위 3개 기술분야가 모두 운송/포장, 엔진/펌프 및 기계부품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에 특허출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전자



/통신에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LG Philips LCD는 측정/광학, 그리고 POSCO는 금속가공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공기관의 특허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은 공공기관 내에서 다출원 1위~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공기관 특허출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주도하였다. 2000년~2004년 동안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한국전기연구원은 전(前)구간에 비해 특허출원이 급증하여 다출원 순위가 각각 4위, 5위 및 8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00년~2004년 동안 각각 420건과 324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다출원 10위권으로 새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3. 구간별 공공기관 중 다출원인의 특허출원동향

순 위	1990 ~ 1994		1995 ~ 1999		2000 ~ 2004	
	공공기관	출원건수	공공기관	출원건수	공공기관	출원건수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2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90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463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5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0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36
3	한국화학연구원	320	한국화학연구원	472	한국화학연구원	733
4	한국원자력연구소	97	한국기계연구원	253	전자부품연구원	500
5	한국기계연구원	88	농촌진흥청	242	한국원자력연구소	436
6	한국식품개발연구원	78	한국원자력연구소	24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20
7	농촌진흥청	69	전자부품연구원	218	한국기계연구원	389
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10	한국전기연구원	347
9	국방과학연구소	67	생산기술연구원	13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24
10	생산기술연구원	50	한국전기연구원	105	농촌진흥청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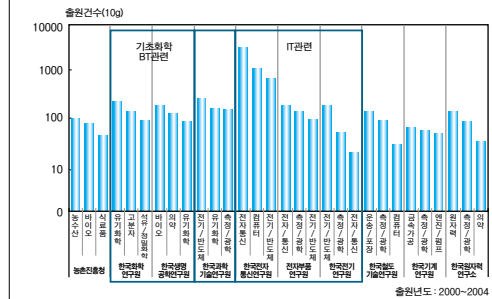
전자부품연구원은 2001년 48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특허출원활동이 저조하였으나, 2002년부터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공공기관내 다출원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99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공공기관내 다출원 순위 7위였으나 2004년 128건으로 다출원 5위로 순위상승하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생산기술연구원은 2003년부터 특허출원이 급증하여 공공기관내 다출원 상위 10위내에 진입하였다.

표14. 2000년 이후 연도별 주요 공공기관의 특허출원동향

공공기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49	864	1,196	1,346	1,50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77	251	237	249	222
한국화학연구원	97	133	152	169	182
전자부품연구원	28	48	132	140	15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8	65	60	99	128
한국기계연구원	51	54	67	96	12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8	26	38	119	113
한국원자력연구소	80	76	81	100	99
한국전기연구원	51	58	70	72	96
생산기술연구원	9	13	16	106	90
농촌진흥청	56	74	78	39	50

공공기관 중 2000년 이후 다출원 상위 10개 기관별 다출원 기술분야를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전자부품연구원은 전자/통신 분야에 각각 3,077건 및 177건을 출원하여 WIPO 기준 32개 기술분야 중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국화학연구원은 유기화학, 고분자 및 석유/정밀화학 분야 등 화학 관련분야, 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의약 및 유기화학 등 BT 및 제약 관련 분야에 특허출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전기/반도체, 유기화학 및 측정/광학 순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 IT와 기초화학 관련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 주요공공기관의 다출원 기술분야



3) 대학의 특허동향

대학 중 한국과학기술원의 특허출원은 2001년과 2002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대학 중 다출원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특허출원이 2003년에 전년 대비 185%의 출원증가율을 보이며, 2003년과 2004년에 다출원 대학 2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03년 2월 『서울대학교지적재산권규정』을 공포하는 등 지재산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동 대학의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2003년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다출원 대학 4위와 공동 5위로 순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한양대학교는 2001년 3월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2001년 10월 『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규정』이 시행되면서 2003년부터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주요대학의 다출원 기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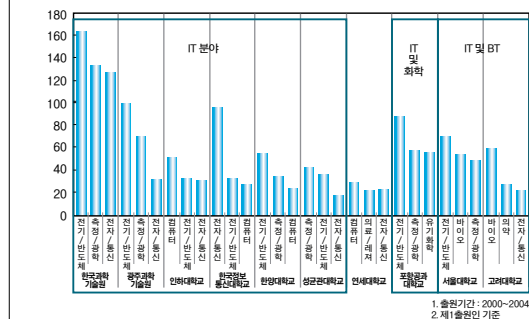


표15. 2000년 이후 연도별 주요 대학의 특허출원동향

대 학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소 계
한국과학기술원	189	182	175	194	241	981
포항공과대학교	82	102	116	102	108	510
서울대학교	24	22	53	151	206	456
광주과학기술원	83	62	47	71	74	337
인하대학교	28	33	40	78	78	257
고려대학교	31	31	27	59	76	224
한양대학교	2	26	51	94	80	253
연세대학교	9	16	26	78	78	207
한국정보통신대학교	32	20	38	48	36	174
성균관대학교	3	33	34	48	62	180

다출원 상위 10개 대학 중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등 대다수의 대학교는 다출원 상위 3개 기술분야가 모두 IT 관련분야로서 IT관련분야에 특허출원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는 다출원 상위 2개 분야가 바이오 및 의약으로 BT 관련분야에 특허출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다출원 3개 기술분야는 전기/반도체, 바이오 및 측정/광학으로서 IT와 BT 관련분야에 특허출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비영리기관의 특허동향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고등기술연구원은 비영리기관 특허의 84.1%를 차지하는 등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중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지속적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등기술연구원은 2000년 이후 특허출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2004년의 경우 45건에 그치고 있다. 상기 두 기관의 특허출원이 집중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금속 관련 분야에 특허출원을 집중하고 고등기술연구원은 IT 및 기계관련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6. 주요 비영리기관의 특허출원현황

비영리기관	1990~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포항산업과학연구원	41	11	136	210	249	223	258	316	264	276	273
고등기술연구원	155	343	247	287	120	158	6	35	39	43	45
기 타	146	43	34	35	53	48	53	48	81	62	103
비영리기관 전체	342	397	417	532	422	429	317	399	384	381	421

표17. 주요 비영리기관의 주요기술분야

기관	기술분류	출원건수	점유율	기관	기술분류	출원건수	점유율
포항산업 과학연구원	아금/도금	371	16.4%	고등기술 연구원	전기/반도체	380	25.7%
	금속가공	351	15.6%		전자/통신	216	14.6%
	무기화학/수처리	347	15.4%		운송/포장	125	8.5%
	측정/광학	330	14.6%		측정/광학	120	8.1%
	건설	198	8.8%		금속가공	113	7.6%
	전기/반도체	136	6.0%		엔진/펌프	108	7.3%

※ 출원년도 : 1990~2004년

3.4 지역별 특허동향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구간별 특허출원동향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00년~2004년 간 각각 32,852건과 33,356건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도권에 소재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출원 증가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팬택엔큐리텔 등과 같은 통신업체와 삼성SDI와 LG Philips LCD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업체의 출원건수 증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광역시도 대우일렉트로닉스와 GM대우오토엔테

13) 현대자동차는 1996년까지 동종업체(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와의 경쟁적인 특허출원으로 1996년에 8,892건을 출원했지만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1998년에 197건으로 출원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크놀리지(구:대우자동차)의 재무상태 악화로, 울산광역시 현대자동차¹³⁾의 재무상태 악화와 함께 경기도 화성군 남양연구소로 연구인력이 이전되어 2000년 이후 5년간 출원된 특허건수가 이전 5년에 비해서 감소했다.

지역별로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및 제주도가 다른 광역 시도보다 여전히 낮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점유율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34.68%로 가장 높았고, 5개 권역별에서는 수도권이 68.7%로 국내 특허 출원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2004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충남이 19%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 경상북도 및 제주도는 2% 이하대로 증가율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혁신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발명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이동현황을 살펴보았다. 수도권에서 발명활동을 수행한 연구인력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한 연구인력은 2,606명이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연구인력은 4,136명으로서 연구인력은 수도권으로 집중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한 연구인력은 1,605명으로서 5개 권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전지역에 연구단지가 집적화되어 있어 연구인력이 충청권 지역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인력이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한 지역은 충청권과 영남권으로서 각각 1,816명과 1,813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남권에서 타권역으로 이동한 연구인력이 2,743명으로서 6개 권역 중 가장 많고, 발명자 대비 타권역 이동비율은 수도권이 10.0%로서 6개 권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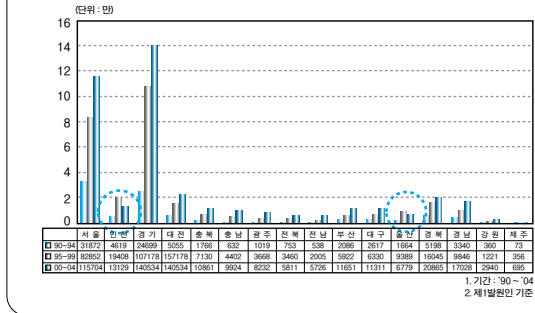
표18. 구간별 발명자의 활동현황

권역별	1990년대 후반(A)	2000년대 전반(B)	발명활동지속비율(%), (B/A)
수도권	64,535명	26,110명	40.5%
충청권	15,300명	8,697명	56.8%
영남권	19,815명	9,600명	48.4%
호남권	5,149명	2,663명	51.7%
강원도	752명	333명	44.3%
제주도	266명	130명	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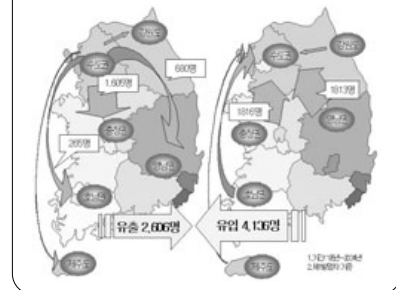
* 각 권역은 발명자가 1990년대 후반(1995년~1999년)에서 발명활동을 수행한 지역임

연구소의 이전, 타지역으로의 발명 등에 의해 발생한 연구인력의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에서는 경기도 이천과 충청북도 청주에 연구소가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연구인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한 발명자가 가장 많은 출원인은 하이닉스반도체(214명), KT(119명) 및 삼성전자(107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충청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발명자가 가장 많은 출원인은 하이닉스반도체(166명), 삼성전자(132명), KT(81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영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발명자가 가장 많은 출

〈그림 10〉 광역자치단체별 구간별 특허동향



〈그림 11〉 수도권 발명자의 유입과 유출현황



원인은 현대자동차로 348명이 이동했는데 이는 현대자동차의 울산연구소가 2002년 남양연구소로 통합 이전되면서 연구원이 다수 이동하게 된 결과이며, 아울러 2000년 이후 울산광역시의 특허출원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19. 주요 이동지역의 발명자수

수도권 ⇒ 충청권			충청권 ⇒ 수도권			영남권 ⇒ 수도권		
출원인	이동인원	비율	출원인	이동인원	비율	출원인	이동인원	비율
하이닉스반도체	214	13.3%	하이닉스반도체	166	9.1%	현대자동차	348	19.2%
KT	119	7.4%	삼성전자	132	7.3%	삼성전자	273	15.1%
삼성전자	107	6.7%	KT	81	4.5%	LG전자	99	5.5%
삼성SDI	82	5.1%	SK텔레콤	80	4.4%	하이닉스반도체	83	4.6%
ETRI	62	3.9%	ETRI	64	3.5%	삼성테크윈	26	1.4%
주요출원인소계	584	36.4%	주요출원인소계	523	28.8%	주요출원인소계	829	45.7%
총계	1,605	100%	총계	1,816	100%	총계	1,813	100%

3.5 협력연구에 의한 특허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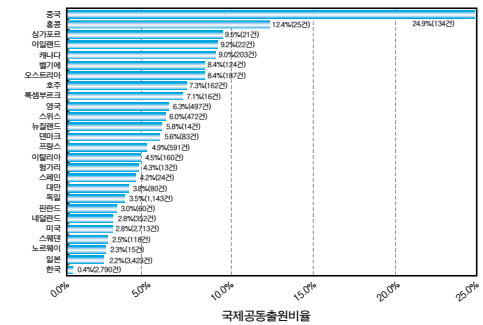
1) 국제협력 연구

특허출원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국제공동연구에 의한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서 국제공동출원이 3,423건이고, 한국 2,790건, 미국 2,7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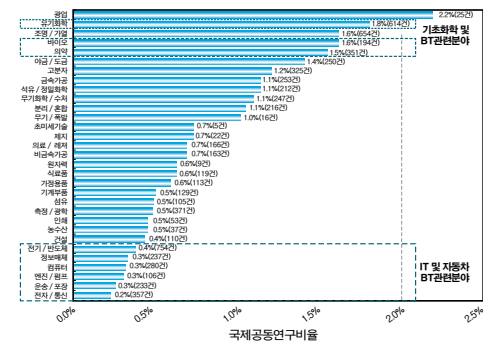
1990년~2004년 동안 특허출원건수가 100건 이상인 국가 중에서 중국의 국제공동연구비율이 24.9%를 나타내며 국가간 연구활동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회원국 중에서는 아일랜드가 9.2%를 차지하고, 그 뒤로 캐나다가 9.0%를 차지하였다. 국제공동출원건수가 가장 많았던 일본은 국제공동출원비율이 2.2%로 나타났고, 미국은 2.8%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도 국제공동출원비율이 0.4%로 OECD회원국과 아시아 경쟁국사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990년~2004년 동안 국제공동연구에 의한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분야는 654건이 출원된 조명/가열 분야이며, 이는 524건을 출원한 일본의 린나이와 한국의 린나이코리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WIPO 기준 32개 기술분야 중 유기화학, 고분자, 바이오 및 의약 등 기초화학 및 BT 관련분야의 특허는 국제공동연구비율이 상위권에 있으나, 전기/반도체, 전자/통신, 엔진/펌프 및 운송/포장 등 IT 및 자동차 관련분야는 하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2〉 주요 국가별 국제공동연구비율 및 특허출원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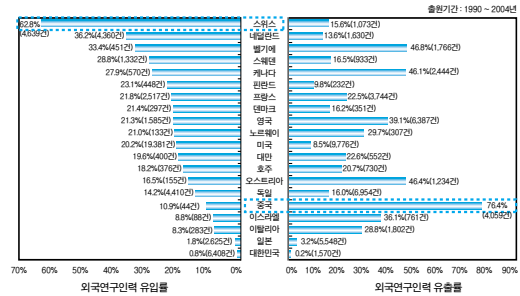


〈그림 13〉 기술분야별 국제공동연구 비율



1990년~2004년 동안 다출원국가 20개국을 대상으로 외국 연구인력의 활용비율과 자국의 연구인력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비율을 <그림 14>에서 살펴보았다. 동기간 동안 외국연구인력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많은 국가는 한국 6,408건, 스위스 4,639건 및 네덜란드 4,360건 순으로 나타났으나, 각 국가별 출원건수 대비 외국연구인력 활용비율은 스위스가 6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명자 기준으로 자국의 연구인력이 외국에서 발명활동을 수행하여 출원된 특허는 미국 9,776건, 독일 6,9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각각 발명자의 특허출원건수 대비 해외에서의 특허출원비율은 중국이 7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4> 국가별 연구인력의 국제화 활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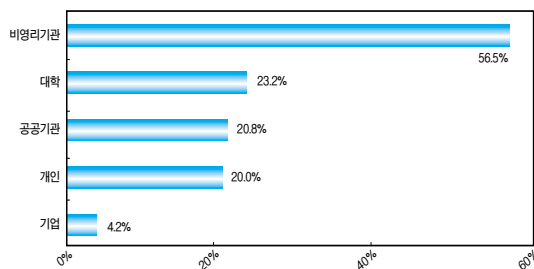
2) 내국인간 협력에 의한 특허동향

연구주체간 공동연구는 기업과 연계되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의 연구주체 중 공동연구 비율은 비영리기관이 5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POSCO간의 공동연구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0. 연구주체간 공동연구현황

연구주체	기업	공공기관	대학	비영리기관	개인
기업	6,196건	5,095건	1,131건	4,155건	8,738건
공공기관		76건	186건	31건	389건
대학			22건	19건	730건
비영리기관				5건	91건
개인					22,490건

<그림 15> 연구주체별 공동연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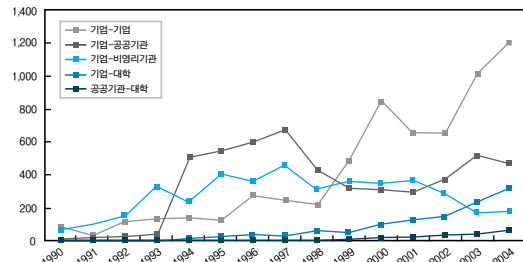
1994년~1998년 동안 기업-공공기관간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999년부터는 기업간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출원이 주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대학간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출원은 200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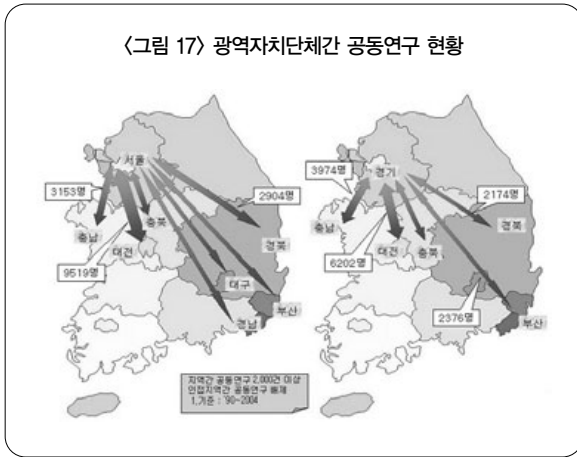
1990년~2004년 동안 지역간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출원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연구의 주요거점은 서울과 경기도로서 상기 두 지역은 대전과 가장 활발한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과 공동연구에 의해 출원된 특허출원건수는 서울-대전 9,519건, 서울-충남 3,153건 그리고 서울-경북 2,904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경기도-대전 6,202건, 경기도-충남 3,974건 그리고 경기도-부산 2,376건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간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출원은 주로 IT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대전간 공동연

<그림 16> 연도별 연구주체간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출원동향





구는 1,652건을 출원한 전자/통신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전기/반도체 1,299건, 컴퓨터 798건의 순으로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대전간 공동연구에 특허는 전자/통신 1,046건, 전기/반도체 1,017건 그리고 측정/광학 569건 순으로 출원되었다.

3.6 외국계 기업의 특허동향

『외국인 투자기업현황』(2004. 3월말 기준, 산자부)에 게재된 외국계 기업 중 외국인이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일반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1,796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1990년~2004년 동안의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동 기간 동안 외국계 기업 중 특허출원활동을 수행한 기업은 13.8%(247개)로서, 특허출원활동 기업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업종 가운데 기술개발활동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은 전기·전자분야의 기업이 57개로 가장 많으며, 화공 및 운송용 기계분야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의 특허출원활동이 부진한 의약 분야¹⁴⁾에선 녹십자백신, 한독약품 및 한국노바티스 3사가 1990년 이후 1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특허출원활동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21. 외국계 기업 중 업종별 특허출원기업의 현황

업종	외국계 기업 수*	출원기업 수	비율	업종	외국계 기업*	출원기업 수	비율
전기·전자	189	57	30.2%	기타제조	30	3	10.0%
화공	184	44	23.9%	의약	31	3	9.7%
운송용기계	112	40	35.7%	공공기타서비스	36	3	8.3%
도·소매	364	19	5.2%	전문직별건설	2	2	100%
비즈니스서비스업	143	16	11.2%	문화·오락	32	2	6.3%
기계 및 장비	118	14	11.9%	부동산임대	57	2	3.5%
금속	48	11	22.9%	금융·보험	158	2	1.3%
비금속광물	24	6	25.0%	농축·임업	5	1	20.0%
식품	43	6	14.0%	종합건설	15	1	6.7%
제지·목재	19	5	26.3%	광업	6	-	-
음식숙박	89	4	4.5%	어업	2	-	-
통신	15	3	20.0%	운수·창고	37	-	-
섬유·직물·의복	21	3	14.3%	전기가스	16	-	-

* 외국계 기업은 전체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기업 중 10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함

14) 1990년~2004년 동안 의약분야에 출원된 특허는 내국인 9,169건 그리고 외국인 13,495건임


외국계 기업 중 LG Philips LCD는 특허출원활동을 가장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만도, 위니아 만도와 BOE 하이디스테크놀로지도 외국인이 인수 또는 합병후 특허출원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GM 대우는 대우의 구조조정 시기에 특허출원이 급감하였으며,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2002년 이후에도 특허출원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999년 아남반도체의 일부를 인수한 앰코테크놀로지 코리아는 2002년부터 특허출원이 급감하였으며, 1998년 삼성 부천 반도체사업장을 인수한 페어차일드코리아 반도체는 외국인이 인수한 다음해부터 특허출원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계 및 장비 업종인 엘지오티스 엘리베이터와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외국인이 인수한 직후 특허출원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2. 각 업종별 주요 출원인의 특허출원동향

업종	외국계 기업	투자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전기 전자	LG Philips LCD	1999	0	0	0	0	12	1	60	253	227	438	689	992	1,596	2,215	1,816	8,299
	린나이코리아	1975	59	53	59	42	56	77	77	86	42	31	50	84	45	67	68	896
	앰코테크놀로지 코리아	1999	0	0	0	0	0	1	62	73	112	164	235	132	28	32	33	872
	페어차일드코리아 반도체	1998	0	0	0	0	0	0	145	201	186	53	35	29	38	26	16	729
	LG Philips 디스플레이	2001	0	0	0	0	0	0	0	0	0	0	0	102	283	235	72	692
	BOE 하이디스테크놀로지	2002	0	0	0	0	0	0	0	0	0	0	0	112	213	196	166	687
운송용 기계	GM대우오토엔 테크놀로지	2002	5	27	34	117	467	5,911	2,671	3,119	418	166	22	1	31	21	19	13,029
	만도	1999	0	0	0	0	3	0	19	395	244	148	459	337	309	386	397	2,697
	한라공조	1987	0	0	0	3	22	15	45	44	117	117	136	199	266	425	300	1,689
	위니아만도	1999	0	0	0	0	0	0	4	83	135	181	241	281	304	177	219	1,625
	한국델파이	1986	0	5	4	11	51	30	51	70	58	15	121	77	54	64	112	723
	발레오만도 전장시스템코리아	1999	0	0	0	0	0	0	21	47	30	82	68	38	38	3	0	327
기계 및 장비	엘지오티스엘리베이터	1999	0	0	0	0	0	0	13	38	102	209	3	0	0	2	2	369
	볼보건설기계코리아	1998	0	0	0	0	5	5	32	164	84	9	0	0	0	0	0	299
화 공	도레이세한	1999	0	0	0	0	0	0	7	3	19	3	1	6	39	51	43	172
	동우화인켐	1992	0	0	0	0	0	0	0	0	0	1	4	6	15	16	41	83
도소매	히타치엘지 데이터 스토리지 코리아	2000	0	0	0	0	0	0	0	0	0	0	0	24	48	62	34	168
	머큐리	2000	0	0	0	0	0	0	50	163	491	243	43	62	6	1	1	1,060

■ 는 인수 또는 합병이 승인된 연도

USPTO의 특허통계

본 보고서는 2005년 11월 3일 개최된 PATINEX(PATent INformation EXpo)에서 USPTO의 Mr. Robert Johnson이 발표한 자료인 "Patent Statistics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를 국문으로 재작성한 글입니다.

혁신기획팀 김민아 譯



Robert Johnson
Customer Information Services, USPTO

1. 서론

USPTO내에서 특허통계업무를 맡고있는 부서는 PTMD(Patent Technology Monitoring Division)이다. 이전에는 TAF(Technology Assessment & Forecasting)로 불리우던 PTMD는 고객정보서비스의 전자정보상품국(Office of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 under Customer Information Services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소속이다.

최근의 PTMD의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실용신안특허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엿볼 수 있다. 2005년 말까지 미국에서 약 7백만건의 실용신안이 등록되었으며,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실용신안 등록건수는 60%이상으로 폭등했다. 동기간동안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90%이상으로 폭등했다. 2004년의 경우 미국 실용신안 등록건의 49%가량이 외국인건이라는 점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 특허통계 정보이용자

정부 정책가, 기업 전략가, 산·학계의 연구자들이 주로 특허 통계정보를 필요로 한다. 정부의 지적권 정책의 효과를 연구하거나, 경제 정책의 효과 또는 기술 활동 성과를 판단하는데 통계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특허통계 활용

특허통계는 기술 활동을 반영하는 인자로서 기능한다. 즉, 특허통계자료는 시대별 기술의 변천사를 보여 주고, 특정 지역 또는 특정업체 및 기관의 기술적 우위

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뿐만 아니라, 기술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기술변화의 속도는 어떠한지 가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특허통계는 발명 활동을 반영하는 인자로서 기능한다. 어떠한 발명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지, 발명가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 발명활동에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특허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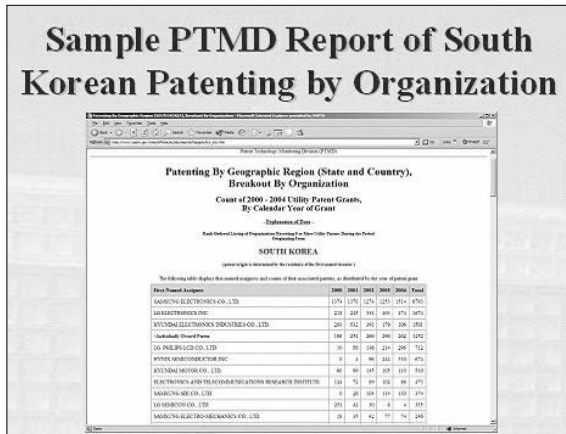
다음의 예시를 통해, 특허통계의 활용법을 소개해 보 고자 한다.



위의 샘플보고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인에 의한 미국특허를 기술분야별로 분류하여 건수를 집계해 놓은 보고서이다. 도표를 살펴보면, 동 기간동안 가장 특허활동이 활발한 기술분야는 Class 438, 즉 "반도체 기기 제조 공정"임을 알 수 있다. 이 기술분야의 2004년도 특허등록건수는 503건이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등록건수는 2,200건에 달한다. 두

번째로 활발한 특허활동을 보여주는 기술 분야는 Class 365(“정적정보저장매체 및 검색”분야)로서, 동 기간동안 총 1,008건의 특허가 등록되었다.

다음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 특허활동이 가장 활발한 한국 양수인(Assignee)을 살펴보자.



삼성전자가 총 6,793건의 특허건을 등록시키면서 단연 1위를 기록했으며, 엘지전자와 현대전자가 각각 1,675건과 1,500건을 등록시키면서 삼성전자의 뒤를 추격하고 있다. 개인소유의 특허건도 1,252건이나 되는 점 또한 눈여겨 볼 만하다.

특허통계자료는 경제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인자로서 활용될 수도 있다. 물론, 경제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허통계자료 외에도, R&D 비용, 고용시장, 무역 등 기타 통계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야하며, 지식재산권 정책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특허통계자료의 한계

단순한 특허건수 집계를 혁신인자로 활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일부 특허가 다른 특허에 비해 혁신적 요소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일부 기술 분야 또는 일부업계는 지식재산보호의 수단으로 특허활동을 보다 활발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특허건수는 정책, 예산, 법률적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점점 더 많은 연구가들이 기술 활동 지표로서 특허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허통계자료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특허통계자료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작업이 행해지고 있을까?

보다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를 구별해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특허인용문헌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중요성 면에서 우위에 위치한 특허가 더 자주 인용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권리보호가 요청된 국가/지역의 개수 및 규모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어떠한 특허에 대해 권리보호를 많은 국가에 요청하면 할수록, 그 특허의 중요성 또한 높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계류중인 특허출원건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법적상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므로, 특허건수를 등록일자 기준으로 집계할 시 비 일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위험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특허건수를 집계하는 방법 또한 특허통계자료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활용된다.

5. USPTO 특허통계 리소스

웹상에서 공개되는 USPTO의 특허통계자료는 회계연도 기준자료와 역년 기준자료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회계연도 기준 통계자료의 경우, USPTO 연차보고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USPTO 내부의 몇몇 부서와 협력하여 PTMD(Patent Technology Monitoring Division)에서 최종 자료를 집대성하고 있다. 본 데이터는 USPTO에서의 지적권 업무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도 포함한다.

역년기준 통계자료는 PTMD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뒤, USPTO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 회계연도 기준 통계자료

USPTO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회계연도 기준 통계자료를 접할 수 있다. 본 자료는 10월 1일부터 그 다음해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수집되는 자료이며, 1993년

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가 웹상에서 공개되어 있다. 회계연도 기준 통계자료는 계류건수, 포기건수, 계류상태, 재심사, 탄원, 소송 등 USPTO내부 업무 부하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별/연도별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 통계도 제공하고 있다.

● **역년기준 통계자료**

USPTO는 PTMD에서 구축한 TAF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역년기준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자료는 1월 1일부터 동년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수집된 자료이며, 국가, 권리허여연도, 대리인, 기술분류, 권리 소유권 등에 따라 다양한 기술적 특허통계를 제공한다. 특수 통계자료 또한 제공되는데, 이는 미국 대도시 지역의 특허통계, 대학별 특허활동 통계, 다 발명자 (prolific inventors), 역사적 의미를 갖는 특허의 통계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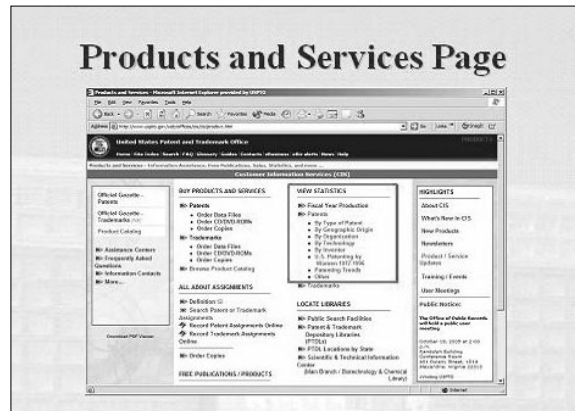
USPTO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통계보고서는, PDF, HTML, 스프레드 시트 등 다양한 포맷으로 존재한다.

TAF 데이터베이스는 1963년 이후 특허 등록건에 대한 서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서지정보는 발명의 명칭, 발명자 이름/주소, 대리인 이름, 분류 데이터 (current classification data), 상태정보(취하, 재심사, 만료 등), 대리 종류(assignment type), 초록(1998년 9월~) 을 포함한다.

양수인 정보는 유일한 양수인 식별기(unique patent assignment identifier)에서 통합된다. 즉 본 식별기는 Inc., Corp., Company, Co와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하는 한 회사의 모든 계열사 명칭을 단일화하는 기능을 한다. 물론 철자오류와 같은 데이터 오류도 수정된다. 이렇게 정비된 서지정보는 Cassis Patents BIB optical disc로 판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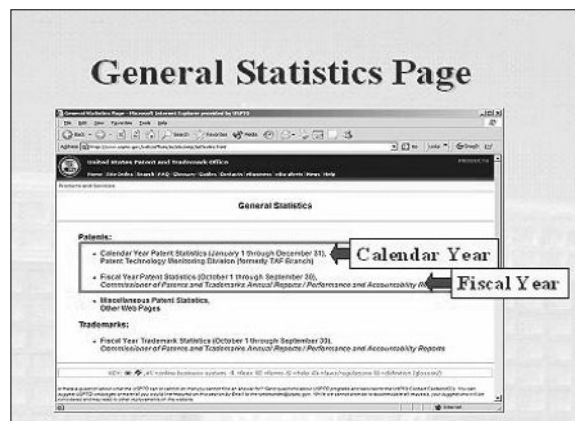
6. 웹상에 공개되는 USPTO의 특허통계

웹상에서 미국 특허통계정보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USPTO 홈페이지(www.uspto.gov) 의 좌단에 링크된 Products and Services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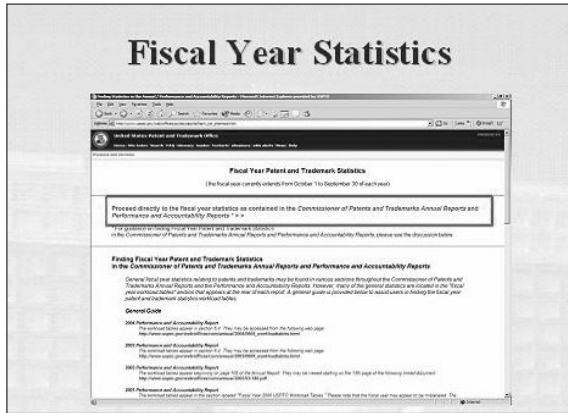


위의 캡처 화면에서 박스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에 특허통계관련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통계자료는 크게 두 가지, 회계연도 통계자료(USPTO 연차보고서)와 역년자료(Calendar year patent statistics)로 구분되어 있으며, 역년자료는 다시 특허종류(특허, 디자인, 식물특허), 지역, 기관, 기술 분야, 발명가별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여성 발명가에 의한 미국 특허활동에 관한 보고서, 특허동향보고서 등 다양한 주제의 특허통계 보고서를 접할 수 있다.

우선, 박스안의 "Patents"를 클릭하여 "General Statistics" 페이지로 이동해 보자.



통계정보는 역년기준 자료와 회계연도 기준 자료로 나뉘어져 있으며, 우리는 회계연도 통계자료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다.



회계연도 통계자료 페이지의 상단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USPTO의 연차보고서 페이지로 연결된다. 연차보고서는 1993년도분부터 2004년도까지 공개되어 있으며, 2001년부터 연차보고서의 명칭을 “Annual Report”에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로 바꾸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연차보고서는 PDF 포맷으로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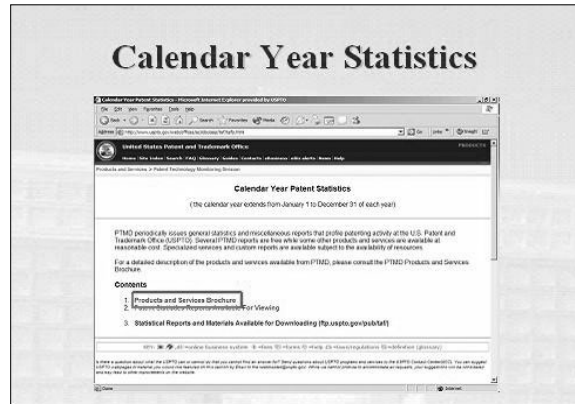


이제 역년통계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자.



다시 역년통계자료 페이지로 되돌아가서 하단의 박스 부분(아래 그림 참조)을 선택하면, Workload table과 연도별(역년기준) 실제 통계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다.

우선 Workload table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페이지에는 2004년도 연차보고서(2003년 10월 1일~ 2004년 9월 31일)에 포함된 workload table이 모두 나열되어 있는데, Workload table 데이터는 특허심사활동, 출원건수, 계류특허건수, 등록건수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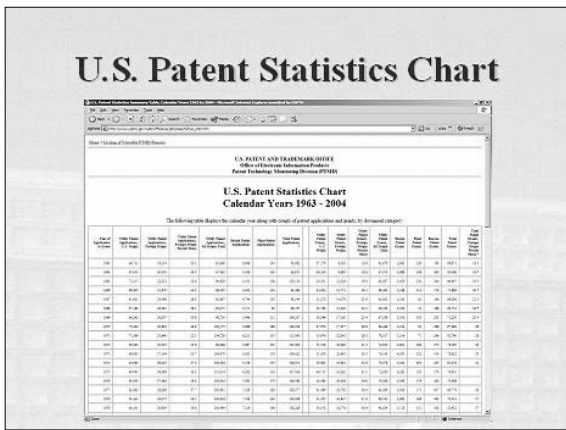


역년통계자료 페이지는 “PTMD 상품/서비스 브로셔”, “열람용 특허통계보고서”, “FTP 다운로드용 보고서”의 세가지 콘텐츠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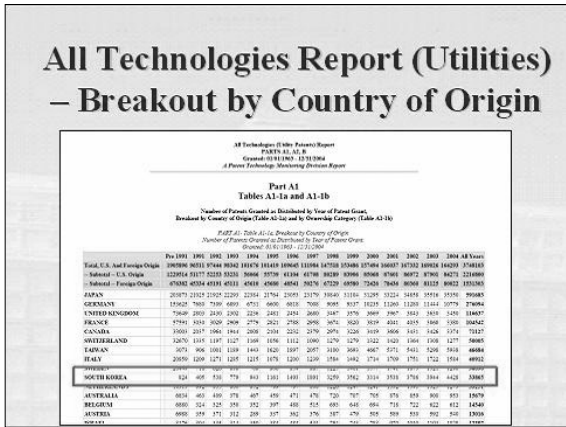


PTMD 상품/서비스 브로서는 18페이지 분량의 문서로서, PTMD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요, 웹상에 공개되지 않은 상세 리포트, 별도의 비용 지불하에 제공되는 맞춤형 보고서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열람용 특허 통계보고서”를 클릭하면 다양한 분류기준에(특허종류별, 지역별 등)따라 분류된 통계자료를 접할 수 있다. 예시로 몇 가지 특허 통계보고서를 살펴 보도록 하자.



우선 미국특허통계차트를 살펴보자. 본 차트는 1963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데이터를 연도별로 구분하고, 각 연도에 해당하는 실용/디자인/식물출원건수, 실용/디자인/식물 등록건수, 미국/해외 출원건수, 미국/해외 등록건수의 집계를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통계분석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거주인에 의한 특허등록건수의 비율은 1963년도 18%에서 2004년도 48%로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예로 “All Technologies Report(Utilities)-Breakout by Country of Origin”을 살펴보자.

Table A1-1a는 외국인 실용등록건수를 1991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로 집계한 자료이다. 본 기간 동안 등록건수 최다국가는 계속 변하고 있으며, 한 예로 한국의 경우 등록건수가 1991년 405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4,42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즉 전체 건수로 집계할 때 한국은 등록최다국가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하지만, '04년도 실적만을 볼 때는 4위에 랭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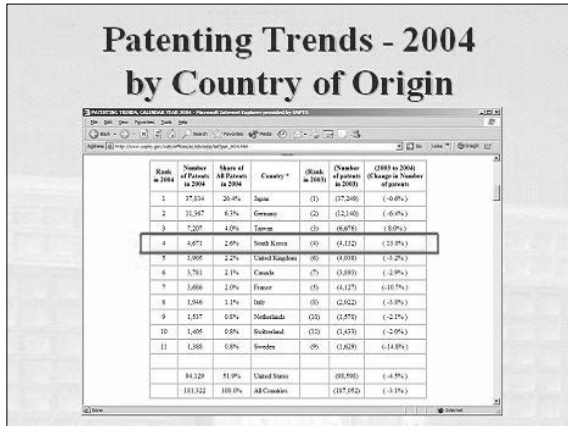
세 번째 예로 지역별 특허기술 통계자료를 살펴보자.

Patented Technology by Geographic Origin

(U.S. or Foreign)	Code	State-Territory or Country	2000	2001	2002	2003	2004	Total
(Foreign)	JPX	JAPAN	889	1120	1240	1229	1240	5718
(Foreign)	TWX	TAIWAN	947	1170	783	607	609	4086
(Foreign)	KRX	SOUTH KOREA	351	455	483	456	503	2248
(Foreign)	DEX	GERMANY	84	105	112	140	160	601
(Foreign)	SGX	SINGAPORE	63	104	132	107	73	479
(Foreign)	FRX	FRANCE	30	55	56	54	54	249
(Foreign)	ITX	ITALY	31	61	57	36	22	207
(Foreign)	GBX	UNITED KINGDOM	5	26	19	35	31	116
(Foreign)	NLX	NETHERLANDS	9	18	22	22	20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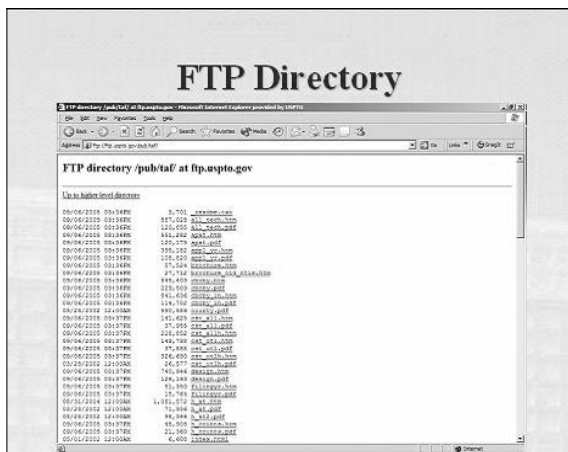
본 보고서의 도입부에서 미국에 출원된 한국특허의 대부분이 Class 438, 즉 반도체 기기 공정 프로세스 관련 기술에 집중되어 있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 이같은 사실은 위의 “Patented Technology by Geographic Origin” 자료에서 확인될 수 있다. 위의 자료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Class 438에 대해 등록된 실용신안건을 지역별로 분류한 것이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Total” 집계건수를 기준으로 할때, 일본이 5,718건으로서 Class 438에 대한 실용신안 최다등록국가이며, 그 뒤를 타이완(4,086건)과 한국(2,248건)이 뒤따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예 외에도, 대중의 관심을 끄는 통계자료로 “특허동향 보고서”를 꼽을 수 있는데, 본 보고서는 1991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위의 테이블은 2004년 특허동향보고서 중 일부로서, 해외출원국가의 미국내 특허허여건수 랭킹자료이다. 2004년과 2003년 각각의 랭킹을 집계했는데, 2004년의 경우 한국은 4,671건의 특허를 허여받아 4위에 랭크되었다. 한국의 특허허여건수는 전체 미국특허허여건수의 2.6%를 차지한다. 2003년도에도 한국은 4,132건의 특허를 허여받았으므로 4위에 랭크되었다. 즉, 미국에서의 한국특허허여건수는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13%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FTP 다운로드용 보고서”를 살펴볼 차례이다. 대부분의 PTMD 보고서는 USPTO의 FTP 서버(ftp://ftp.uspto.gov/pub/taf/)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보고서는 PDF와 HTML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특허통계관련 보고서의 대부분을 FTP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그림은 FTP Directory를 캡처한 것이다.



이상으로 USPTO에서 공개하는 통계자료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이제 웹상에 공개되지 않는 “PTMD Specialized Patent Statistics Reports”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Specialized Reports”란 웹상에 공개되지 않은 맞춤형 보고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보고서의 대부분은 용량이 너무 크거나, 혹은 구매용으로 특수 제작되었기 때문에 웹상에서 공개되지 않고 있다.

BT, 인터넷, 통신, 데이터 처리 시스템 등 특수 기술 분야에 대한 상세 보고서 또는 국가별 특허활동 인덱스 보고서 등이 “Specialized Reports”로 분류될 수 있다. 본 맞춤형 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에는 PTMD 브로셔나 USPTO 상품/서비스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다.

USPTO는 자국의 통계자료를 세계의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WIPO를 꼽을 수 있으며, WIPO는 세계 각국 특허청의 통계자료를 입수하여 “Industrial Property Statistics”로 발간하고 있으며, USPTO 통계자료도 본 IPS에 포함되고 있다. 본 자료는 <http://www.wipo.int/ipstats/en/statistics/patents/index.html> 에서 입수할 수 있다.

USPTO의 통계자료는 특허삼국(USPTO, EPO, JPO)의 협력관계의 산물인 “Trilateral Statistics Report”(http://www.trilateral.net/tsr)를 통해서도 발간된다. 현재 1996년부터 2003년까지의 삼국특허통계보고서가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데, 본 연차보고서는 USPTO뿐만 아니라 JPO 및 EPO의 통계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정부에 의해 발행되는 간행물 중 하나인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도 역시 USPTO의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본 간행물은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USPTO가 NSF를 위해 맞춤형 제작한 “Specialized patent statistics”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특허정보원 기관 및 주요사업 소개

한국특허정보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국가 특허기술정보 인프라(infra)를 구축하고 우수발명의 창출과 첨단 기술개발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 등에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허청 산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

■ 주요사업

1. 특허청 특허행정지원

- ① 선행기술 조사분석
- ② 국제특허분류(IPC) 부여사업
- ③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
- ④ 특허문서전자화
- ⑤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2. 대민 선행기술조사분석 서비스(FORX)

- ① 특허 선행기술 조사·분석 서비스
전 세계 특허/비특허 문헌을 조사·분석하여 조사보고서(search report)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출원 시 선행출원 유무의 확인, 경쟁사의 기술동향조사, R&D 방향 설정 및 중복투자 방지, 특허분쟁 방지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03년의 경우, 6,400여건의 선행기술조사분석서비스 제공)
- ② 특허정보분석사업
특허정보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지표로 사용가능하도록 일정 기준별 특허통계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국가 연구 개발사업 결과 발생된 특허에 대한 조사·분석 수행
- ③ 특허(IP) 컨설팅
특허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SMEs) 등을 위해 KIPRI의 전문 인력이 특허관리, 선행기술조사 등에 관한 기법 컨설팅

기업 특허활동에서 KIPRI 서비스 활용 방안

■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이용한 특허정보 검색

- ▶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 개요
한국특허청이 보유한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 전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효율적으로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한 특허기술정보 무료 인터넷 서비스
- ▶ 이용방법
인터넷 접속(<http://www.kipris.or.kr>) → 검색시스템 로그인(최초 방문시 이용자 무료 등록) → 검색식 입력 → 결과(서지/행정/기술 정보) 열람
- ▶ 활용방법
출원 전 선행 특허문헌 검색, 출원 후 본인 출원건에 대한 심사처리 현황(출원경과) 조회, 경쟁사의 특허출원/권리 감시 등

■ KIPRI의 선행기술조사·분석 서비스(FORX) 이용하기

- ▶ 특허 조사·분석 서비스 종류
 - 특허성 조사(patentability search)
 - 기술정보조사
 - 무효심판자료 조사
 - 침해자료 조사
 - 벤처기업확인용 선행기술조사
 - 기술분야별 정보연속조사(SDI)
 - IP 컨설팅
 - 특허맵(patent map) 작성

먹는 즐거움?? 먹는 두려움!!

- 농산물 브랜드의 트렌드와 성공사례 -



상표조사분석팀
김 용 주

I. 들어가며

지금 시대의 화두는 건강이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웰빙과 마주치게 된다. 웰빙은 말 그대로 건강한(Well) 삶(Being)을 사는 것,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연일 언론이라는 식탁에 먹거리에 대한 기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 포르말린에 절인 장어, 말라카이트 그린으로 키운 민물고기, 항생제로 칠감한 돼지고기, 납으로 버무린 김치, 게다가 기생충알까지 검출된 김치..... 바로 우리가 방금전까지 맛있게 먹고 하루도 빠짐없이 섭취한 음식들인지라 충격과 놀라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비단 이러한 농산물 뿐 아니라 구제역, 광우병, 조류독감 등에 해당되는 육류마저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 하는 건지라는 허탈감이 심하게 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진 먹거리의 신뢰성으로 인해 먹는 즐거움보다는 먹는 두려움으로 앞서게 되는 현실 앞에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좀더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한다. 눈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브랜드가 알려진 상품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각 판매점에서도 “임금님표 이천쌀”, “팔당 유기농 농산물”, “반디청결미”처럼 농산물의 80% 이상이 브랜드 제품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농산물에도 브랜드 시대가 열린 것이다.

II. 본문

1. 농산물 브랜드의 도입 배경

농산물 브랜드가 국내에 도입된 배경은 'WTO 뉴라운드' (2001년)가 출범이후 농산물 수출국들의 거센 개방

압력에 대처하고 우리 농산물도 적극적인 브랜드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개방과 아울러 국내적으로 생산기술의 발달과 시설재배의 확산, 새로운 산지의 등장으로 과거와 같은 지역적 품질격차와 주산지의 개념이 점차 퇴색되고 있어 농산물 유통에 브랜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고, 유통시장의 구조와 소비행태의 변화로 시장경쟁이 심화되면서 브랜드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증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유통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물량조절과 규모화 중심의 기존 시장전략만으로는 출하농산물이 제값을 받는데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농산물에도 얼굴을 알리는 브랜드 마케팅이 활성화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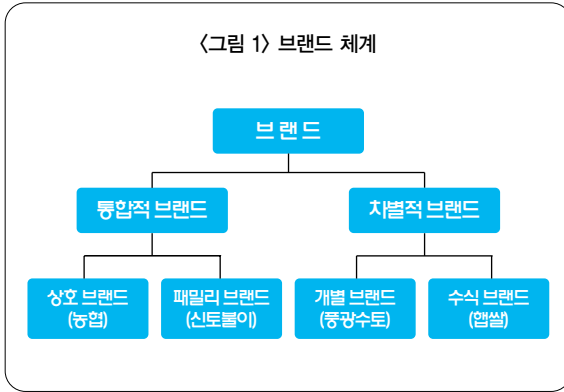
2. 농산물 브랜드의 트렌드

가. 농산물 브랜드의 대세는 공동브랜드

최근 3~4년 전부터 농산물에 브랜드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밝힌 국내에 소개된 일반농산물 브랜드는 개별브랜드가 3,989개, 공동브랜드 966개 등 총 4,955개에 달하고 있어, 농산물 브랜드의 범람하는 시대라고까지 불리우고 있다. 여기서 잠깐 공동브랜드, 개별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야 할 듯하다.

〈그림 1〉과 같이 공동브랜드(또는 패밀리브랜드)란 제품라인을 결합하여 공통속성을 이미지화해 표현한 브랜드를 말하기도 하며, 브랜드를 개발하려는 복수 혹은 다수의 주체들이 경제적 효율성 및 전략적 필요성, 지역적 한계성 극복 등의 목적으로 동일한 브랜드로 합일하여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또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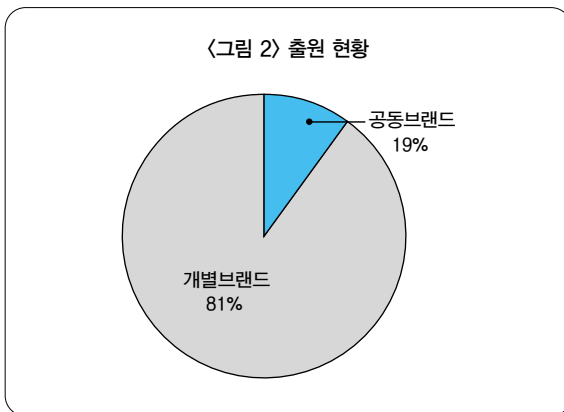
별브랜드란 제품 각각의 특성을 묘사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02년말 현재 총 농산물 브랜드는 <표 1>을 볼때 총 4,955개이며, 공동브랜드는 966개로 전체 브랜드의 19%이고, 개별브랜드는 3,989개로 81%를 차지하여 개별브랜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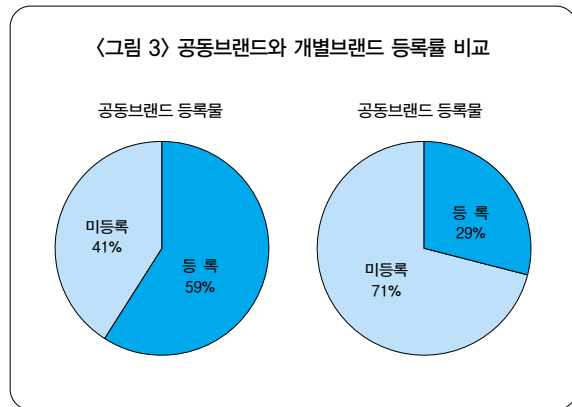
표1. 분류별 농산물 브랜드 현황

구 분	공동브랜드	개별브랜드	계
등 록	572	1,168	1,740
미등록	394	2,821	3,215
계	966	3,989	4,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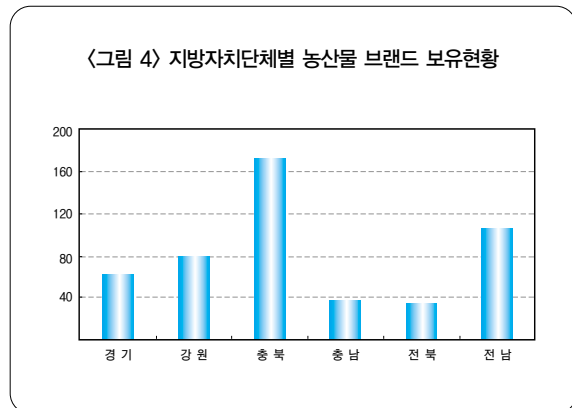
그러나, 이중 상표 및 의장으로 등록된 브랜드는 전체 브랜드의 35.3%인 1,740개로 나타났으며, 출원량에 대비하여 볼 때 공동브랜드의 등록률이 59%로 개별브랜드 29%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공동브랜드와 개별브랜드 등록률 비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표 및 의장출원여부와 무관하게 농산물 브랜드의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228건), 충북(171건), 전남(105건)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지방자치단체별 농산물 브랜드 보유현황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들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 품질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최근 미등록브랜드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목반 단위의 생산자조직들을 하나로 묶어 시·군 단위의 공동브랜드 개발이 대세이다. 특히 “청풍명월”은 충남의 11기 시·군이, “EQ-2000”은 전북의 7개 시·군이, “풍광수토”는 전남의 18개 시·군이 각각 참여해 도 단위의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시·군단위의 공동브랜드만도 51개에 달해 지방자치단체별 공동브랜드가 이제는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공동브랜드는 안성의 ‘안성마춤(포도, 인삼)’, 여주의 ‘찬솔(콩, 녹두나물)’, 춘천의 ‘푸른강원’, 태백의 ‘태백산황기’, 횡성의 ‘국사랑오이’, 홍천의 ‘금물산 쌀’·‘홍

천강(고추, 오이)· ‘맞다이’, 인제의 ‘내린천’, 보은의 ‘보은군 대추’, 영동의 ‘삼도봉호도’ 등이 있다.

나. 지역특산품 명칭은 상표권으로 보호

특허청은 2005년 7월 1일부터, ‘보성녹차’, ‘제주감귤’, ‘이천도자기’, ‘금산인삼’, ‘안성유기’, ‘나주배’, ‘안동간고동어’ 등과 같이 높은 품질이나 명성 등을 가진 유명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단체표장제도¹⁾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상표법은 종전 상표법상의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었으나, 그 상표가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등록은 배제하고 미등록된 유명 지리적 표시(〈표2〉²⁾ 참고)는 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등록 받을수 없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명한 지역특산품을 내세운 상표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2. 지리적 표시와 관련이 있는 대상품목 조사결과

자치단체	특산품건수	지리적 표시 관련 품목
경기도	28	(4)가평잣, 안성포도, 이천도자기, 이천쌀
인천광역시	2	(2)강화화문석, 강화인삼
강원도	88	(13)대관령감자, 강릉초당순두부, 봉평메밀, 양양송이버섯, 오대산김치, 원주치약산황골엿, 정선황기, 정선대리석, 진부령황태, 춘천닭갈비, 춘천막국수, 홍천옥선주, 횡성더덕
충청남도	50	(8)공주 정안밤, 금산인삼, 당진초록도 약썩, 서산생강, 서산마늘, 서천한산세모시, 서천한산소곡주, 청양구기자
충청북도	15	(5)괴산고추, 보은대추, 음성고추, 제천약초, 충주사과
전라북도	13	(6)남원목기, 순창고추장, 장수사과, 전주비빔밥, 풍천장어, 고창복분자
전라남도	33	(14)고흥유자, 구례산수유, 나주배, 담양죽세공품, 무안양파, 영암굴비, 영암무화과, 영암어란, 완도김, 진도구기자, 진도대파, 진도홍주, 창평쌀엿, 해남황토고구마, 보성녹차
경상북도	45	(5)안동포, 안동간고동어, 영주풍기인삼, 울릉도 호박엿, 의성마늘
경상남도	60	(5)남해 멸치액젓, 마산아구찜, 창원단감, 함양 울, 산청꽃감, 하동녹차
제주도	8	(8)북제주 선인장, 제주갈치, 제주감귤, 제주흑돼지, 제주 옥돔
합 계		342(70)

다. 농산물 브랜드를 지역축제로 연계

이처럼 지역특산품의 상표권이 보호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리화와 병행하여 지역축제 및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의 전통문화나 지역특산품 등과 관련한 지역축제는 “순창고추장축제”, “양양송이버섯축제”, “풍기인삼대축제”, “동해오징어축제” 등이 있으며, 지역축제 명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태이며, 특허청에서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리적 표시의 권리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용역비용등의 지원을

1)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2) 특허청 보도자료로 홍보목적상 참고자료이며, 실제등록여부와는 무관한 자료임

추진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지리적 명칭사용이라는 이유로 막혀있던 브랜드 마케팅 및 상표출원 등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그림 6〉 상표 등록된 지역축제명



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죽전문점인 ‘본죽’, ‘현죽’, ‘우정죽’ 등은 한끼 저렴하게 때우는 싸구려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사먹는 비싼 음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인기있는 메뉴가 되었다. 또한 웅진식품의 과일야채음료 상표 ‘자연은’은 ‘자연의 은혜’라는 의미로 최근 자연주의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상표는 ‘자연은 90일 토마토’, ‘자연은 720일 알로에’, ‘자연은 210일 제주 감귤’, ‘자연은 140일 포도’ 등의 시리즈로 농부의 손길과 정성이 들어간 시점부터 수확시기까지를 일수로 나타내 가장 맛있게 숙성한 시점에 수확한 원료를 사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유기농’, ‘친환경’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상표 출원은 총 111건으로, 전체출원의 74%인 82건이 2003년 이후에 출원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각 시·군이나 품질관리단체의 품질보증 인증마크의 출원도 증가하였으며, 등록받은 상표도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물려 농협 하나로 마트나 롯데마트, 갤러리아백화점 등 대형 매장도 각각 ‘아침마루’, ‘자연애(愛)찬’, ‘고메 엘포리엄’ 등 친환경 브랜드를 내고 매장을 넓혀 가고 있으며, 각 백화점에는 친환경 농산물코너 및 직접 브랜드를 제작하여 운영 중이다. 롯데백화점의 ‘푸름(Purum)’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으며, ‘한겨레초록마을’, ‘한살림’, ‘생협’ 등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라. 웰빙 열풍과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강세

소수에 의해 조금씩 만들어 먹던 슬로푸드와 친환경 상품들이 대중속으로 파고들면서 브랜드화와 시장개척

〈그림 7〉 자연주의를 반영한 등록 상표



〈그림 8〉 친환경과 품질보증 표시의 등록 상표



3. 농산물 브랜드의 성공 사례

얼굴있는 농산물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농산물 브랜드가 개발자의 홍보부족, 지속적인 품질관리 미흡 등으로 많은 수의 브랜드에 비해 쓸만한 브랜드가 없으며 '반짝' 브랜드가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공동브랜드의 성격상 재배지역과 출하시기별로 맛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국·내외 성공사례를 간단히 참고자료로 남기고자 한다.

(1) 국내 성공사례

햇사레

햇사레는 복숭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복숭아 주산지인 장호원·동부과수·감곡·음성 등 4개 농협

이 연합해 만든 국내 최초의 복숭아 공동 브랜드로 농산물 브랜드 시대를 연 대표적인 상품으로 인정받으며, 도매시장과 유통업체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을 통해 첫 방송이 나간 햇사레 복숭아는 준비한 물량 1500세트가 순식간에 동이 났으나 시청자의 주문이 쇄도했다. 이 때문에 현대홈쇼핑은 연장방송까지 해야 했다고 한다. 햇사레 복숭아의 차별화된 포장박스는 가짜까지 나돌아 햇사레 관련 4개 농협으로 구성된 햇사레 연합사업단이 이 박스를 도용한 업체를 검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짜 포장은 지금까지 농산물 중 쌀 외에는 거의 전례가 없었다고 한다. 도매시장 출하와 직거래를 병행하고 있는 판매방식과 포장박스가 햇사레의 성공비결이다. 사업실적은 211억 6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321억 3700만원으로 급성장해 52%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2) 해외 성공사례

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성공사례는 해외에서 찾아보기가 쉽다.

(가) 뉴질랜드의 'ENZA(엔자)'



뉴질랜드가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사과와 배의 브랜드다. 1991년까지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란 국가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해 사과와 배를 수출했다. 그러나 '뉴질랜드'란 브랜드는 농산물의 품질과 관계없이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모든 사과와 배에 붙여졌기 때문에 고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는데도 실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뉴질랜드 사과·배 유통국(ENZAFURIT)'은 'ENZA(엔자)'라는 짧고 기억하기 쉬운 브랜드를 개발했다. 'ENZA(엔자)'는 사과와 배를 크기·품질에 따라 다양하게 포장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뉴질랜드의 깨끗한 환경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수출에 박차를 가했다. 또 중간상인을 없애고 해외 합작회사를 통해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했다. 그 결과 지난해 50여개국에 1,200만 박스를 수출,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나) 워싱턴 애플



이 사과 브랜드는 주정부 차원의 끊임없는 홍보가 성공의 요인이다. 1937

년 워싱턴 주 총독은 '워싱턴주 사과 홍보 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지역 사과 재배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사과의 광고와 판매를 전담했다. 현재 재배업자들은 한 상자당 25센트를 위원회에 기부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미국전역에 유통망을 구축해 워싱턴 애플을 알리고 있다.

(다) 썬키스트



오렌지 가격하락에 공동대처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1907년부터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

데, 당시 광고 대행사가 제안한 Sunkissed (태양의 입맞춤)라는 말을 줄여서 사용한 것이 썬키스트(Sunkist)

상표의 기원이 되었다. 1909년도에 캘리포니아지역 오렌지 생산협동조합이 출하하는 고품질 오렌지의 브랜드로 정식 등록하였다. 세계적 오렌지 브랜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농협에서 시작했지만, 지역 브랜드를 거쳐 미국을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로 성장한 성공사례이다.

III. 맺으며

생산된 농산물을 보다 좋은 값으로 잘 팔기위한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농산물 브랜드들의 대부분이 체계적인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단순히 붐을 타고 급격히 만들어지는 바람에 개수는 많은데 쓸만한 브랜드를 찾기란 쉽지 않다. 공동브랜드에 비해 개별브랜드는 브랜드 개발 후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기능이 취약한데다가 그나마 어느 정도 알려졌다가도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브랜드들은 품질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보다 지역 이름을 붙이는데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농산물 브랜드의 현황과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유명 농산물 브랜드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듯 하다. 매년 수많은 브랜드가 탄생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기억에 오래동안 기억되기 위해서는 우선 품질의 우수성이 일반농산물과 명백히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며, 브랜드명과 로고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 역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 및 브랜드의 사후관리의 중요함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농산물인 김치와 인삼은 “공동캐릭터”를 부착하여, 일본, 대만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유럽지역까지 진출하여 정착단계에 있고, 장미, 백합 등 한국산 화훼도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농림부는 해외로 수출하는 우수농산물에 사용하게 될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로 “Whimori”(휘모리)를 선정, 올 하반기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한국산 농산물이라면 믿고 살 수 있는 파워브랜드가 생기는 날을 기다리는 것도 그다지 멀지 않은 듯 하다. @

[참고문헌]

1. 문삼섭, 「상표법」제2판, 세창출판사 2004.
2.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2005. 10. 10 방문)
3.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2005. 10. 10 방문)
4. 농산물 브랜드 가치 실태 (2005. 10. 11 방문)
<http://blog.naver.com/yooyoon01/140018534694>
5. 농산물 브랜드 실태 (2005. 10. 11 방문)
<http://blog.naver.com/oheunjo0.do?Redirect=Log&logNo=60014936197>
6. patent news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공동브랜드 (2005. 10. 12 방문)
<http://www.whimori.com/main.html>
7. 지역특산물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 (특허청 보도자료 2005. 7. 1 일자)
8. 공동브랜드 사례 (2005. 10. 12 방문)
<http://blog.naver.com/tigerday.do?Redirect=Log&logNo=100012494249>
9.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한 제언 -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http://blog.naver.com/pr1878.do?Redirect=Log&logNo=60009603715>(2005. 10. 12 방문)



2005 EA (Enterprise Architecture) Conference를 참관하고



전산개발운영팀
이진구

EA(Enterprise Architecture)란

기업 내 업무와 IT의 구조를 일치시켜 효율적 업무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전산화 구성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전산화 구축을 통하여 기업은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기업은 '신속함'에 의해 가치를 창출하고 '경비 절감'에 의해 위험 요소를 제어할 수 있다.

첫날 여정

2005년 10월 22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의 여유를 뒤로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주말이라 그런지 여행 목적으로 수속 절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수속을 마치고 9시간 동안 비행을 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 이번 컨퍼런스 참가 전에 세계적인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인 톰슨사이언스에 방문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홍보와 필요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EA Conference가 열리는 라스베이저스로 이동하지 못했던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니 오후 1시정도 한국에서는 새벽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샌프란시스코란 도시는 LA와 같이 살벌하고 분주한 도시가 아닌 약간의 여유와 나름대로의 전통을 간직한 도시이며 금문교나 유명한 페이블비치라는 골프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공항 수속을 마치고 바로 자동차를 렌트해야 했다. 일정상 모든 이동은 자동차로 하기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는 필수였던 것이다. 미국지리를 모르는 우리로써는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차량을 빌려야 했으나,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차량을 구하기는 힘든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차량을 렌트하고 공항 근교에 예약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렇게 미국에서의 1박이 시작되었다.

톰슨사이언스 방문을 위해 산호세로

다음날 우리는 톰슨사이언스를 방문하는 것으로 미국에서의 첫 번째 일정을 시작했다.

톰슨사이언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시간 정도 아래로 이동해야 하는 산호세에 위치하고 있었다. 산호세는 도시의 번잡함보다는 전원도시를 연상케 할 만큼 여유롭고 한산해 보였다.

약속을 하고 사무실로 들어선 순간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쾌적한 사무 공간과 회의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한국특허정보원도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에 부러운 마음이 날 사로잡았다. 회의실로 안내되고 약 2시간에 걸친 서로의 소개와 질문들이 이어야졌다. 웹서비스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지와 우리의 향후 발전 방향, 선행기술조사 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KPA에 대한 관심이 주류를 이루는 회의였다. 이 시간동안 우리는 거대하게 밀려오는 지적재산권의 파도와 정보 전쟁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정보 보급업체의 대항화, 세계 문헌자료의 다양하고 다각화된 보급이 톰슨사이언스의 목표인 듯 보였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특징은 Patent Map이었다. 지형도와 같이 세분화된 구성이 우리의 2차원적 분석방식보다 훨씬 강력해보였다. 이러한 서비스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특허정보원이 나아갈 지표는 데이터의 무작정적인 보급이 아니라 특화된 데이터, 가공 분석된 데이터의 보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전산시스템이 동부로 이전하는 바람에 전산시스템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LA로 이동

톰슨사이언스 방문을 뒤로 하고 다음 여정을 위해 LA



로 향했다. 산호세에서 바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는데는 약 8시간, 오늘 하루에 이동할 수 없는 거리라는 판단에서 선택한 경로이다.

3시에 산호세에서 출발하였다. 네비게이션과 표지판, 지도에 의지한 채 차에 올랐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았던 운전도 어느 정도 미국 스타일로 변해가고 있는 듯하다. 바로 Express-Way로 들어갈 수 없어서 2시간 가량 Free-Way로 이동해서 LA행 Express-Way로 이동해야 했다. 미국은 특이하게 Free-Way, High-Way, Express-Way로 도로가 나누어져 있다. 우리는 흔히 High-Way를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녀본 결과 High-Way는 우리의 지방국도 정도가 맞는 듯하다. LA로 이동하는 동안 가장 크게 다가온 점은 정말 넓고, 방대하다는 것이다. 30분을 지나도 하나의 농장이 끝나지 않는 방대함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자원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5시간 동안 직선으로 연결된 고속도로를 타고 아래로 아래로 향했다. 끝이 없을 것 같던 직선도로의 끝에 드디어 Los Angeles 라는 표지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 벌써 주위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도 어두운 도로를 1시간 30분가량 달려서 드디어 LA에 도착했다. LA는 많은 도로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LA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길을 다 모른다고 한다. 처음 차량으로 이동했고 거기다 저녁에 이런 길에 접어들었으니 고생할 것은 뻔한 일이었다. LA도로에서 2시간을 소비하고 드디어 숙소에 도착해서 여정을 풀었다. 내일의 이동을 위해 잠을 청했지만 시차적응이 안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간신히 잠이 들고 잠깐 잠들었다 싶었는데 벌써 날이 밝아 있었다.

EA Conference를 위해 라스베이거로

아침을 먹고 본격적인 EA Conference 참가를 위해 라스베이거스로 향했다.

라스베이거스는 LA에서 사막도로를 4시간 정도 달려야 하는 곳이 위치해 있다. 사막을 달리는 동안 미국의 정신은 개척정신에서 시작된다는 어느 연설문의 서두가 생각났다.

4시간 달려서 드디어 사막 가운데 우뚝 선 도시가 보였다. 라스베이거스다.

라스베이거스는 낮에는 아주 허름한 도시이다. 그러나 밤이 되면 향락의 도시로 변한다. 또 한 이곳은 도박



과 매춘이 합법화된 미국 내 유일한 도시이다. 그만큼 도시에서 나누어주는 전단지도 이와 관련된 것들뿐이고, 호텔마다 슬롯머신이 Information보다 먼저 사람들을 맞이한다. 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내일의 EA 참관을 위해 짐을 풀었다.

본격적인 EA Conference를 참관하면서

세미나 주최의 목적

- ◆ 비즈니스 운영 및 기획 임원
 - 기업의 전략들을 전향할 방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비즈니스와 IT의 전략 협력방법에 대한 이해.
 -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IT 조직을 창조하고 운영·유지하도록 함에 있어서 귀하의 역할인정 및 인식.
 - e-Business 환경에서 비즈니스 전략 방식을 변화시켜온 방법론 학습.
 - IT리더들이 궁금하고 질문할 비즈니스 기술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
 - 효과적인 비즈니스/IT 협력창조.

◆ IT 전문가 그룹

-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Digital planning, Enterprise Architecture 및 전자적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절차와 이슈들에 대한 이해.
- 전략적 비즈니스 전망으로부터 IT 발견.
- 조직의 변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
- 효과적인 비즈니스/IT 협력 창조.

EA Conference 세미나 참관기

EA Conference는 2005년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 8일에 걸쳐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EA 컨퍼런스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시간 관계상 이틀 동안 필요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J.W 메리어트 호텔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우리가 머물던 호텔에서는 약 30~40분 정도를 차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있었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하나의 portfolio 관점을 통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Business와 Information Technology를 정확히 정렬 시키는데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법(기술)습득과 오랜 경험있는 EA 전문가들, 아키텍처들, IT 전문가들, 탁월한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하게 함으로서 정보 변화와 필수적인 사업의 수립에 필요한 정확하고 유일한 환경과 배경 및 정보획득에 있었다.

EA의 선진 트렌드와 현재 국내의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을 위해 컨퍼런스를 참관하게 되었으며, 실제적인 방법론이나 구축 방안에 대한 성과보다는 트렌드 파악과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

EA 협의회 측의 무리한 일정에 의해 다소 피곤한 상태에서 컨퍼런스를 참관하게 되었으며, 일단 놀란 점은 한국이 EA 부분에서는 선진국이거나 하는 점이었다. 참가자 300여 명 중 대부분(90%이상)이 미국 전문가들이었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별 참여 인원은 한국이 17명, 호주 4명, 일본 2명, 칠레 2명 등 한국의 전문가 참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아 IT, 특히 Business 분야에서 한국은 상위에 속하는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다.

금번 컨퍼런스의 방향은 한국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왜 EA를 해야 하는지?' 또는 '구축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와 같은 수행 단계의 이슈가 아닌 EA가 구축된 상황에서 어떻게 더 잘 활용하고 이용하여 비즈니스에 Value를 줄 수 있느냐가 주요 관심사였으며, 더 나아가 SOA(simple Oriented Architecture),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Web Service와 같은 최신기술과의 접속에 관심을 가진 연구, 발표가 많았다.

컨퍼런스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 많았으나,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이나 로비에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와의 테이블 미팅을 통해 실제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용이하였다. 국내의 경우 세미나라면 발표에 그치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생각과 함께 국내 컨퍼런스에서도 이러한 방식 진행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겼다.

우리는 여러 세미나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나누어 듣기로 하고 세미나에 참가했다. 내용을 일부는 전부터 알고 있던 이론이었으나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실무에서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이론만 알고 있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EA의 한 부분인 BPM, BPR등을 적


용할 방안 및 솔루션도 몇몇 소개되고 있어 한국특허정보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 방안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한국으로 돌아오며

EA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시 4시간 가량 사막도로를 달려 LA 공항 근처로 이동했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 마무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공항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미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다음날 8시경 숙소를 나와 렌트카를 반납하고, 공항 이동 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다.

수속을 받기위해 9시경 탑승수속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맘이 편안했다. 그런데 1시간가량 수속을 할 수 없었다. 게으른 수속담당자 때문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뒤에서 항의하고 난리가 났을 법도 하나 아무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미국의 한 단면일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잠시 동안 생각을 잠겼다. 이번 미국 여행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톰슨사이언스에서 거대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세계화 추세에서 한국특허정보원의 나아갈 방향을 찾고, 세계적인 EA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위치 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적용할만한 기술이나 솔루션에 대한 고급정보를 얻고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가지적 효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개개인이 느낀, 자신이 감당해야 할 IT 전문가로서의 위치와 한국특허정보원에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계화의 추세에서 한국특허정보원을 다른 경쟁업체보다 먼저 세계화의 일선에 앞세우는 일, 이 일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며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탈피가 필요하다는 생각하나를 더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다. 



FEMW 2005 포럼 참관기



KIPRIS사업팀
최 유 찬

FEMW는 Far East Meets West in Vienna의 약어로 아시아 특허정보, 현재는 주로 한국, 중국, 일본의 특허정보를 유럽내 특허전문가들에게 소개하여 아시아 특허정보의 활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EPO 비엔나 사무소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이다. 제1회 행사는 2002년에 JPINFO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으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특허정보에 한정된 형태였으나 2004년부터 한·중·일 3개국 특허정보에 대한 행사로 확대·개편 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2003년에 최초로 FEMW(당시 JPINFO)에 참석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워크샵 발표자로서 초청되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금년 FEMW 행사는 11월 24일부터 25일 까지 양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2005년 11월 22일 오후 1시 35분 FEMW 2005 포럼 참가를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향해 인천공항을 떠났다. 비엔나행 직항노선이 없는 관계로 유럽 대륙의 허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한국시간 23일 새벽 5시, 현지시간 저녁 9시경 약 16시간의 긴 여행 끝에 비엔나 공항에 도착했다. 마침 올해의 첫눈이 내렸고, 눈으로 장식된 도시가 멀리 동양의 끝에서 날아온 우리를 반겨 주는 듯 했다. 한국은 다음날 새벽녘이니 비행기를 타고 과거로 날아 온 셈이었다.

동유럽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인지 제법 쌀쌀한 날씨가 코끝을 찡하게 하였고, 겨울 코트를 가져오라던 EPO 관계자들의 충고도 허언(虛言)은 아니었음을 느꼈다.

하지만 비엔나의 차가운 바람이 오랜 비행으로 지친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듯 했고, 느슨해진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게 하는 것 같았다. 내일부터 시작될 3일간의 출장일정이 순조롭게 끝나길 그리고 준비한 워크샵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호텔로 향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비엔나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로 잘 알려져 있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유

럽의 고도(古都)로, 지금도 중부 유럽의 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이다. 지리적으로 북쪽은 체코, 동쪽은 헝가리·슬로바키아, 남쪽은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 서쪽은 스위스와 독일에 접하고 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동유럽의 관문으로 통했다.

비엔나 시내는 마로니에 나무가 도시를 단아하게 감싸고 있으며, 거리 곳곳에는 많은 카페가 있어 유명한 비엔나의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다.

오랜 세월 오스트리아를 지배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원으로 유럽의 많은 음악가들이 비엔나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모차르트, 베토벤, 요한 슈트라우스, 슈베르트 등도 비엔나에서 활동한 음악가로 유명하다.

예로부터 '음악의 도시'라고 불리는 만큼 요즘에도 거의 매일 저녁 오페라 하우스 등에서 공연이 열리며,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비엔나에서 시민들이 제일 먼저 복원하기로 결정한 건축물이 오페라 하우스였다니 비엔나 시민들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PO 비엔나 사무소 방문 및 저녁식사

공식행사는 24일부터 시작이지만 오전 중에 EPO 비엔나 사무소 방문과 저녁에는 EPO에서 마련한 한·중·일 관계자와 발표자들을 위한 저녁식사가 예정되

어 있었다.

비엔나 사무소는 우리가 머물던 호텔에서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쉽게 찾아 갈 수 있었다. 공항에서 우리를 픽업해준 아시아 특허정보 담당자 Irene Schellner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고, 먼저 비엔나 사무소의 Director인 Gunther Vacek과 인사를 나누고 후 Irene과 몇몇 EPO 직원들과 meeting을 가졌다.

아시아 특허정보 책임자이면서 FEMW 행사의 실무 책임자인 Irene은 워크샵 운영을 통한 정보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향후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특히 2006년에는 KIPRIS 워크샵뿐만 아니라 비엔나 사무소의 시설을 활용하여 트레이닝 코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다양한 방식의 양기

관간 업무협력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Irene은 유럽 특허정보 이용자들의 한국특허정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많은 EPO 고객들이 KIPRIS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Irene과의 meeting을 마치며 2006년 FEMW에서의 워크샵 추진을 위한 검토와 유럽내 KIPRIS 홍보를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를 통해 한국특허정보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유럽에 소개하는 기회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쌓아온 EPO 비엔나 사무소와의 신뢰는 이를 위한 긍정적인 토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표1. FEMW 2005 일정

일 자	시 간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11. 24 (목)	09:00~11:30	스페셜 세미나	1. PATOLIS-e를 이용한 영문 초록 및 Fulltext 검색	
			2. 한·중·일 특허법 기초	
			3. 한·중·일 무료 특허정보 DB 소개	
			4. PATOLIS-e를 통한 Legal Status 정보 활용	
			5. 한·중·일 특허공보의 종류 및 번호체계 소개	
			6. FI 및 F-Term 소개	
	14:00~16:00	주제 발표회	• 개회사	EPO
			• 아시아 특허정보 Helpdesk로서의 EPO 역할 확대	EPO
			• 일본실용신안법 개정 등 주요 정책 동향	JPO
			• SIPO의 정보서비스 발전 현황	SIPO
16:00~16:30	휴식	• Coffee Break	KIPO	
16:30~18:00	주제 발표회	• PATOLIS 기능 개선 현황 및 활용방법	PATOLIS	
		• EC·ASEAN 지재권 협력 프로그램(ECAPII) 추진현황	EPO	
19:00~22:00	이벤트	• 아시아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지재권 집행 전략	한켈맨 박사(유럽변리사)	
		• 이브닝 이벤트		
11. 25 (금)	09:00~10:00	토론회	• 한·중·일 전문가와 모닝커피	
			• IPC 제8판의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패널 : 삼국특허청 및 유럽특허청 관계자)	
	10:00~11:30	워크샵	1. INPADOC 및 esp@cenet을 이용한 아시아 특허 검색	EPO
			2. 일본 IPDL 검색방법	JPO, Japio
			3. KIPRIS 검색방법	KIPI
			4. 중국특허 검색방법	SIPO
	12:00~13:30	중식	-	
	13:30~15:00	워크샵	5. PATOLIS-e 검색방법	PATOLIS
6. FI, F-term을 활용한 일본특허검색의 장점			EPO, JPO, Japio	
7. 중국특허의 Deep Indexing			SIPO	
8. 특허분석을 통한 한국기업 동향 전망			KIPI	
15:00~15:30	휴식	• Coffee Break		
15:30~16:45	결과토론/ 폐회식	• 워크샵 결과 토론 총평		
		• 참가자 대표의 FEMW 총평		
		• 폐회식		



저녁이 되어 EPO에서 마련한 한·중·일 관계자를 위한 저녁식사에 참석하였다. 비엔나 전통음식과 포도주를 맛보며 동양에서 날아온 우리들에 대한 환대 속에서 그들의 전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중국 및 일본 측 참가자들과 만나 즐거운 대화와 식사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FEMW 2005 개최

FEMW 2005는 스페셜 세미나, 주제발표, 워크샵, 결과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스페셜 세미나와 주제발표는 24일 워크샵과 결과토론은 25일에 진행되었다. EPO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행사에는 22개국, 70개 기관(기업)에서 120여명이 참석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유럽 출신이었다.

〈그림 1〉 개최식



스페셜 세미나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참가비를 지불하고 참석하는 것이며, 공식 행사 전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아시아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EPO 비엔나 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국제특허정보 컨퍼런스의 경우 서비스 업체나 각국 특허청에서 부스를 설치하여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이 일반적이거나 FEMW는 워크샵 중심의 운영을 통하여 참가자들과 아시아 대표들이 좀 더 심도 있고 실질적인 사안을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후 2시가 되자 메인 컨퍼런스 장은 참가자들로 가득 찼고 사회자의 간단한 환영 인사와 함께 EPO 부청장 Curt Edfjall의 개회사가 시작되었다.

EPO 부청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아시아 특허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FEMW 포럼이 전 세계 특허정보 이용자에게 아시아 특허정보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ASEAN 특허정보 CD-ROM 발행 등 동아시아 각국의 특허정보를 유럽에 제공하기 위한 EPO의 다양한 활동과 지난 20년간 일본특허정보 Helpdesk를 비엔나 사무소에 설치하여 유럽내 일본특허정보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올해는 중국특허청(SIPO)의 협조를 바탕으로 중국 Helpdesk를 설치하여 유럽이용자들에게 중국 특허정보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였으며, 지난달에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특허정보 컨퍼런스(PATINEX)를 언급하며 한국특허청의 특허정보 활용·확산을 위한 활동을 높게 평가하였다.

EPO 부청장은 전 세계가 아시아 특허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영문 데이터베이스가 확대되어 언어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개회사를 마무리 했다.

특별히 금년 행사에는 EPO 부청장이 참석하여 EPO 내에서 FEMW 포럼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비엔나 사무소 관계자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전해주어 아시아 특허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엔나 사무소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

〈그림 2〉 메인 컨퍼런스룸



화가 FEMW 행사에 대한 지원 확대에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PO 부청장의 개회사가 이후 한·중·일 특허청 대표 및 EPO 관계자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국과 중국특허청 대표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번역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한국특허청의 박용우 사무관의 번역시스템(K-PION) 시연은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본특허청 대표는 2005년 개정된 실용신안법과 지난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전자출원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EPO 동아시아 담당자는 ASEAN 국가의 지적재산권 인프라 구축을 위한 EPO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으며, 유럽변리사의 아시아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지적재산권 업무 추진 전략에 대한 발표는 참가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유럽 특허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특허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한국특허청의 번역시스템은 한국특허정보의 접근성을 월등히 향상시킨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Evening Event

저녁 6시경 주제발표 세션이 모두 끝나고 MAK (Museum of Applied Arts/Contemporary Art) 박물관에서 Evening Event가 있었다.

Evening Event는 비엔나 사무소 직원들이 준비한 클래식 연주회로 시작되었으며, 음악의 도시 비엔나답게 프

로 수준의 연주를 보여준 그들에게 참가자 모두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어진 박물관 투어에서는 큐레이터의 안내로 MAK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하였으며, The Kiss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 Gustav Klimt의 몇몇 작품도 만날 수 있었다. Evening Event 동안 있는 비엔나 사무소 직원들의 멋진 연주와 박물관 투어는 예술의 도시 비엔나를 한껏 느끼게 하였다.

KIPRIS 워크샵

25일은 오전9시부터 공식 일정이 있고 10시부터는 워크샵을 진행해야 하는 터라 아침 일찍 행사장으로 향했다.

워크샵 세션은 참가자들과 대면하여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했기에 EPO측에서 세팅해 놓은 노트북을 확인하고 인터넷 연결 상태 등 IT 환경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 문제점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KIPRIS 워크샵이 있을 회의 룸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KIPRIS 워크샵의 Chair를 맡아준 voestalpine사의 지재권 관리부서 책임자인 Gerald Landl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 역시 워크샵 Chair로서 준비를 위해 조금 일찍 도착하였다고 했다. 서로에 대한 소개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후 워크샵 Chair를 맡아주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성공적인 워크샵 운영을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EPO측에서 준비한 노트북의 환경과 인터넷이 모두

〈그림 3〉 Evening Event 연주회



〈그림 4〉 Evening Event 참가자와 함께



안정적임을 확인하고, 한국의 우리 시스템 역시 완벽함을 점검한 뒤 오늘의 공식일정을 위해 메인홀로 나섰다.

EPO에서는 참가자들과 아시아 대표들과의 열린 의견 교환을 위하여 “Morning coffee with the experts”라는 제목으로 워크샵전 공식일정을 준비하였다.

이 시간동안 참가자들은 각국 특허청 또는 기관별 대표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 또는 업무관련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동서양의 문화차이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이러한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EPO의 배려가 눈에 띄었다.

KIPRIS 관련 문의를 하는 참가자들이 상당히 많았기에 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을 만큼 답변에 열중하다 Irene의 부름에 급히 워크샵 룸으로 향했다. 드디어 “Searching Korean patent information on KIPRIS”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운영해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5〉 KIPRIS 워크샵



작년에는 처음이라 긴장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올해는 두 번째라 그런지 조금은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워크샵을 진행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 물론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몇 해 전 대학원 특별강연회에서 초청했던 제프리 존스 前 주한미국상공회의소소장의 ‘프리젠티는 Sorry라는 말을 해서 안되며, Joke를 준비하는 것을 잊어서 안된

다’ 라는 말을 기억하며 자연스럽게 워크샵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첫째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 같고, 둘째는 청중을 지루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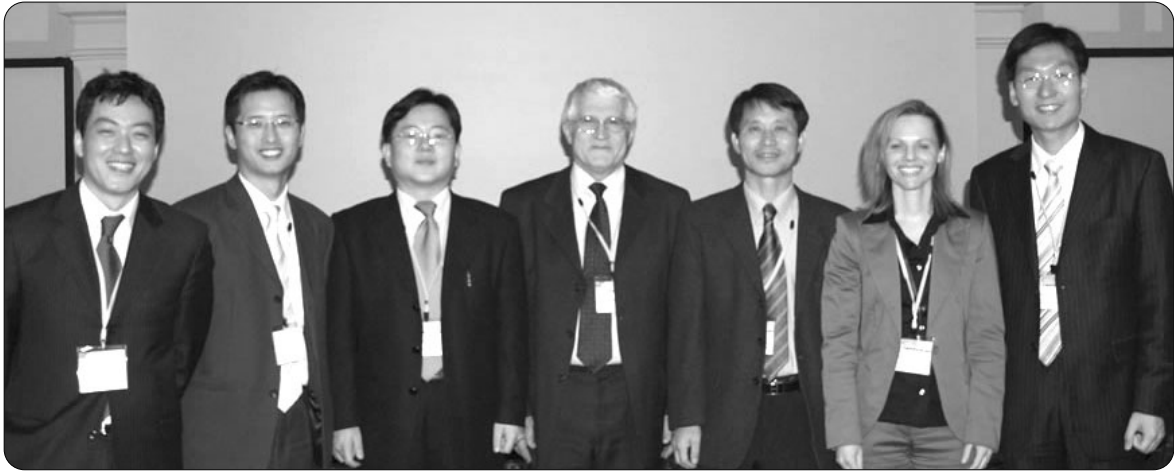
작년에 한번 해보았던 경험 덕분에 나름의 자신감으로 준비해온 내용이 최대한 잘 전달되도록 하였고, 프레젠테이션과 discussion 중에는 적절한 농담을 섞어 참석자들이 워크샵이 끝나는 순간까지 KIPRIS 워크샵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었다.

올해 워크샵에도 약 20명의 참가자들이 KIPRIS 워크샵에 참석하여 회의 룸을 가득 채웠으며, 참석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한국특허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discussion으로 인하여 다음 일정이 점심식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한 시간 삼십분을 15분 가량 지나쳐서야 워크샵을 마칠 수 있었다.

참석자 대부분은 유럽기업체의 지재권 책임자이거나, 특허청 심사관, 특허정보서비스업체 관계자들이었다. 참석자들은 KIPRIS 데이터 및 검색기능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나, 검색방법 안내를 위한 영문 도움말 정보, 데이터 커버리지에 대한 상세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KIPRIS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였으며, KIPRIS 시스템 운영·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보원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참석자들의 인사를 받아 KIPRIS 사업팀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며, 워크샵 시간 내내 한국에서 열심히 시스템 모니터링 중이었던 KIPRIS 사업팀원들 덕분에 아무런 문제없이 시연을 진행하는 등 성공적으로 워크샵을 끝낼 수 있었다.

오후에는 “특허분석을 통한 한국기업 동향 전망”을 주제로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한 두 번째 워크샵을 특허정보전략팀의 류장환 대리가 진행하였다. 한국에서의 특허정보 분석방법 및 활용사례에 대한 소개를 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림 6〉 EPO 비엔나 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FEMW 2005 평가

계획된 모든 워크샵이 끝나고 행사의 마지막 일정한 결과토론이 진행되었다. 결과토론은 각 워크샵 Chair들이 워크샵 평가와 논의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참가자 전체와 공유하고 FEMW 2005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한 시간이었다.

모든 워크샵 Chair들은 아시아 특허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워크샵은 그들이 관심 있는 국가의 관심 있는 정보를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올해 FEMW 2005의 총평 발표를 맡은 Magister Ltd.의 Adams Stephen은 올해 4회째 개최된 FEMW가 아시아 특허정보에 특화된 국제 컨퍼런스로서 그 위치가 확고해 지고 있음을 느낀다는 소감과 주제발표 및 워크샵은 유럽 특허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Adams Stephen의 총평을 끝으로 언제나 그렇듯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되었다. EPO 비엔나 사무소장은 아시아 대표들과 워크샵 Chair 한명 한명에게 선물과 감사장을 전하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누었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행사 참가라 EPO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참가자들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참가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워크샵에 대한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FEMW 행사장을 떠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으며, 한국특허정보에 대한 해외 특허업계 높은 요구와 한국특허정보원의 한국특허정보 보급을 위한 Gateway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긍정적 평가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세계 특허시장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번 출장을 통하여 여러 해외기관의 업무 파트너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므로써 진정한 신뢰와 믿음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 유럽 지재권 News

○ WIPO, 상표·디자인 관련 15차 상설위원회(SCT) 개최

- 15차 WIPO SCT(11월 28일~12월 2일)에 79개 가입국, 관찰단, 4개의 정부간 기구, 11개의 비정부기구가 참석
- 상표 및 디자인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 진행

※자료출처: WIPO 홈페이지, 2005.12.07

○ WIPO, SPLT 초안관련 비공식 오픈포럼 개최

- WIPO는 특허실체법(SPLT)초안 관련 이슈의 논의를 위해 비공식 오픈포럼을 '06년 3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네바에서 진행할 것임을 발표

※자료출처: WIPO 홈페이지, 2005.12.08

○ EPO, EPO 특허정보 컨퍼런스 2005 / PATINNOVA '05 개최

- EPO는 11월 8일~10일 3일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EPO 특허정보 컨퍼런스(구 EPIDOS 컨퍼런스)를 개최

※자료출처: EPO 홈페이지, 2005.11.04

○ EPO, USPTO, JPO 원협에서 삼국회의 개최

- 11월 17일 원협에서 EPO, USPTO, JPO는 삼국회의 개최를 통해 협력을 재다짐하고 특허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화할 것을 목표로 하는 MOU 체결
- 본 MOU는 EPO와 USPTO의 특허문헌을 전자매체로 교환하는 내용도 포함하며, EPO와 JPO의 경우 1999년부터 특허문헌을 전자매체로 교환해 옴.

※ EPO, USPTO, JPO간의 삼국협력은 1983년도부터 시작됨.
※자료출처: EPO 홈페이지, 2005.11.18

○ EU, 유럽공동체상표 전자출원 급증

- 유럽공동체상표의 전자출원 수수료를 인하한 뒤로, 유럽공동체상표 출원이 두배이상 증가
- 10월 22일 OHIM은 전자출원된 유럽공동체상표에 대해 수수료 150 유로 인하

※자료출처: Managing IP, 2005.11.22

○ EPO,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국제협력 강화

- EPO-SIPO(중국특허청)간 협력 20주년을 기념식이 베이징에서 열림
- '70년대에 EPO의 베이징 첫 방문을 시초로 하여, 1985년도 최초의 공식적인 협력관계로 발전
- 연 1회씩 MOU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의 목적을 공고히 함.
- EPO-SIPO간 국제협력 프로젝트 실적
 - 중국의 특허보호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협력
 - EU-China 간 지재권 협력 프로그램 시행
 - 중국의 WTO 가입에 기여
 - 중국특허청에 EPOQUE(EPO의 특허조사시스템으로서, 6천만건의 특허문서 탑재) 접근권한 부여
- EPO-아시아 특허청(SIPO 제외)간 국제협력 프로젝트 실적
 - EPO-JPO 협력관계는 1983년에 초석을 다짐
 - EPO내 동아시아 특허정보서비스를 1991년에 론칭
 - EPO와 KIPO도 꾸준히 협력관계를 유지해 옴

※자료출처: EPO 홈페이지, 2005.12.05

○ EPIDOS News '05년도 4/4분기 발행

- EPO Patent Information Conference의 최고의 화두는 IPC 개편

- 정보서비스 업체나 각국 특허청이 IPC 개편과 관련된 제반준비를 실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 집중됨
- ECLA에 나노기술관련 IPC 생성
- 현재 나노기술은 전체 IPC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조사작업에 애로가 많으므로, EPO는 ECLA 분류에서 나노기술관련 분류인 "Y"(Y01N-sub class)를 생성시킴.
- Y01N class에 20,000개의 특허 패밀리가 포함됨.
- EPO Patent Information Conference 정리
- 참석인원 : 약 600명
- '06년도 개최 : Cyprus (11월 6일 ~ 8일)
- 주 제

구 분	주 제
1	IPC 개편
2	인터넷상에서 MIMOSA software 이용
3	나노기술분야의 분류기호 생성(Y01N)
4	EPO에서 "no search"와 "incomplete search"의 분류법
5	중국특허정보 헬프데스크
6	espacenet의 전문가용 툴 및 서비스

- 인터넷상에서 DOI기법을 이용하여 비특허문헌 접근법 개선
-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는 인터넷 주소가 변경될시 웹파일 또는 인터넷 문서의 변경된 주소로 링크를 자동 재설정하는 기법임
- 현재 EPO에서 이용하는 비특허문헌 DB(INSPEC, COMPENDES, ELSEVIER, PUBSEQ, AIP)에서 250만건에 DOI 기법이 적용됨.
- European Publication Server 새버전 출시
- DB 커버리지 확장(1978년부터 유럽특허컬렉션 전량 탑재)
- 다운로드 옵션 개선(PDF 다운로드 가능)
- IPC 개편내용 적용
- PCT 최소문헌에 한국특허 추가 결정
- 제 34회 PCT 총회(개최일: '05년 9월 25일~10월 5일)에서 PCT 최소문헌에 한국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여, 본 사항은 2007년부터 효력을 발생시킬 것임.
- KIPO, 한영 기계번역서비스 오픈
- '05년 11월 한국특허청은 한영기계번역서비스인 K-PION(Korean 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을 오픈함
- 본 서비스는 세계 각국 특허청간의 특허문서 교환을 촉진하고, 한국특허권을 보호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K-PION 서비스는 현재 국내·외 특허청 심사관이 사용할 수 있음.
- KIPO, 전통DB 구축 계획
- 한국특허청은 전통한국의약 및 치료 관련 지식에 대한 데이터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할 계획임을 발표
- 본 전통DB 구축 시한은 3년으로 예상하고 있음
- 아시아에서 3번째로 전통DB를 구축하는 것임(중국: 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 patent database, 인도: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TKDL) DB)
- IPOS, 디자인/상표 e Journal 발행
- 싱가포르 특허청은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 Designs and Trade Marks eJournal 서비스를 추가함.
- JPO, IPDL에 전문 다운로드 기능
- JPO 산하기관인 NCIPI(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는 IPDL에 특허전문을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음을 발표
- 일본, 상표법 개정
- 일본은 지역기반의 단체표장(Regionally based collective marks) 생성과 관련하여 상표법을 개정하였음을 공포



- 본 개정법은 2006년 4월부터 효력발생
- DPMA, 신규서비스 오픈
- 독일특허상표청(DPMA: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은 DPMSkurier service라는 신규서비스를 오픈하여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본 서비스 이용자는 독일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특허/상표/디자인 공보 전체 또는 일부를 구독할 수 있음
- 또한, 본 서비스는 특허/실용/상표/디자인에 대한 법적 상태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이용자에게 e-mail로 제공.
- Minesoft와 RWS, 기계번역서비스 오픈
- Minesoft 와 RWS group은 합작하여 오픈한 PatBase라는 서비스에 기계번역시스템을 탑재하였음을 발표
- 프랑스 특허청 및 독일 특허청에서 발간한 불문/독문 초록이 영어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PatBase 서비스에서는 영어로 기계번역된 문서를 제공하며, 만약 공식적인 영문초록이 특허 패밀리 내에서 발견될 시에는 기계번역문서는 제거됨
- 기계번역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계용어사전 구축할 계획임.
- ※ RWS Group: 40년 역사의 특허 번역/조사 회사
- ※ Minesoft는 1996년 설립된 유럽의 특허정보제공업체
- ※ Minesoft의 경우 RWS와 합작하여 PatBase를 통해 프랑스 특허청 및 독일 특허청이 발간한 불문/독문 초록의 영문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영어기계번역서비스를 시행
- ※ PatBase란 2003년 Minesoft 가 RWS Group과 협력하여 문장한 특허정보서비스로서, 2800만건의 전세계 특허패밀리 데이터 및 강력한 특허관리툴 제공
- ※자료출처: EPIDOS News 4/4분기, 2005.12.07

○ EPO, 2006년도 Training Program 일정 공개

- EPO는 온라인상에서 '06년도 Training Program의 일정을 공개함
- ※자료출처: EPO 홈페이지, 2005.12.21

□ 미국 지재권 News

○ USPTO, 호주특허청과 국제특허조사 시범외주계약 체결

- 미국 특허상표청은 적체 심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호주 특허청에 미국 PCT 출원건에 대한 조사/심사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범계약 체결
- 본 시범 계약을 통해 호주 특허청은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한 100건의 PCT 출원건에 대한 조사/심사를 수행할 것이며, 미국 특허상표청은 호주특허청의 품질과 정확도를 평가할 예정
- ※자료출처: AG-IP News, 2005.11.06

○ USPTO, '05년 특허출원건수 급증

- '05년도 USPTO 연 차 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에 따르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에 406,302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323,501건의 상표가 등록됨.
- 등록건수의 경우 특허가 165,485건, 실용이 151,079건, 디자인이 13,395건, 식물특허가 816건을 기록함. 1790년도부터 총 700만건 이상의 특허가 허용됨.
- ※자료출처: USPTO 홈페이지, 2005.11.22

○ USPTO, 조사 템플릿 공개

- USPTO는 출원인, 심사관 등 특허관계자들이 선행기술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틀(Search templates)을 제공할 것이라

- 고 발표함
- 본 조사를 제공을 통해, 특허품질 향상을 기대
- ※자료출처: AG-IP, 2005.11.29

○ USPTO, 재택근무 확대

- 미국 특허상표청은 2006년 9월까지 재택근무자를 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함
- ※자료출처: USPTO 홈페이지, 2005.12.21

○ USTR, 중국에 대한 IP권리 침해 관련 대응 필요성 촉구

- 미 무역대표부(USTR:US Trade Representative)의 2005년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WTO 규약을 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적권 관리감독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은 TRIP 협약에 의거하여 중국정부가 올바르게 지적권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공포
- ※자료출처: Managing IP, 2005.12.19

□ 아시아 지재권 News

○ 중국, EU와 협력 다짐

- 중국 부총리인 Wu Yi 는 지적권과 관련하여 중국이 EU와 협력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발표
- ※자료출처: People's Daily Online, 2005.11.14

○ 중국, 특허법 개정

- 중국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에 따라, 중국 특허법도 개정절차를 2008년까지 완료할 예정.
-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간소화" 및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특허허여"에 관한 내용도 개정에 포함될 것임.
- ※자료출처: People's Daily Online, 2005. 11. 24

○ 중국, 국제상표 엑스포 개최

-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셴첸(Shenzhen)에서 첫 국제상표 엑스포 개최
- 중국내 지식재산권 및 세계유명상표 보호 강화 목적으로 ITE(International Trademark Expo) 조직위원회에서 본 행사를 주최하였으며, 중국 및 해외 700여개 업체가 참가
- ※자료출처: AG-IP News, 2005.11.19

○ 중국 정보산업부, Thomson과 IP 파트너십 체결

- 12월 1일 베이징에서 중국 정보산업부(Chineses Ministry of Information)과 Thomson은 협약을 체결하고, IP발전의 근간이 될 공동 연구실(Joint Lab) 오픈함.
- ※자료출처: Managinginformation.com, 2005.12.19

○ 일본, NCIPi 국제특허라이선싱 세미나 개최

- NCIPi는 기술교환의 촉진을 목적으로 '06년 1월 23일~25일 3일간 일본 도쿄에서 국제특허라이선싱 세미나 개최
- JIIL(Japan Institute of Invention and Innovation: 일본발명협회)에서 주관하고, JPO, JIPA WIPO 등의 특허유관기관이 후원
- ※자료출처: NCIPi 홈페이지, 2005.11.18

KIPI NEWS

한국특허정보원 나눔의 밤 행사 개최



한국특허정보원 사회봉사단은 구립 22일 18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 지하 구내식당에서 2005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한국특허정보원 사회공헌활동을 공유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인 '2005 한국특허정보원 나눔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호프 판매를 통한 수익금 전액과 한국특허정보원 사랑의 성금을 합하여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입

장한 직원들에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열매' 배지를 증정하는 한편, 2005년 한 해 동안의 사회공헌 활동 사진 전시, 사회공헌의 중요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등이 선보여 이웃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사랑의 성금 전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됐다.

한국특허정보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지난 해 11월 26일 토요일 한국특허정보원 사회봉사단은 '아름다운 가게' 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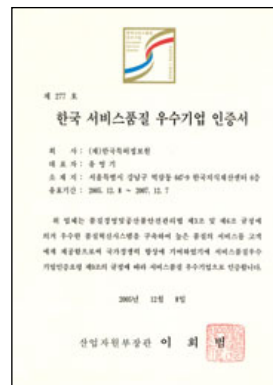


등 총 40여 점을 기증받아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은 총 1,172,500원으로 '아름다운 가게'에 전액 전달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아름다운 가게'와 뷰티풀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매년 '아름다운 가게'와 정기적 행사진행을 통해 나눔의 문화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점에서 「한국특허정보원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가졌다.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는 임직원들의 기증품을 수거해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고 일일 판매도우미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판매 수익금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하는 행사이다. 지난 11월 8일부터 임직원들의 의류, 주방용품, 장식품

한국특허정보원,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획득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가인 한국특허정보원(원장 俞永基, www.kipi.or.kr)이 구립 8일 산업자문부 기술표준원이 주관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2005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정부(산업자문부 기술표준원)에서 서비스산업의 품질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2001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인증제도이다.

한국표준협회 관계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은 내부의 문서 및 고객센터 체계 등을 점검하는 현장평가와 고객설문조사를 통한 고객평가, 평가 모니터링 요원의 암행평가 등에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서의 모든 기준을 갖췄다"고 인증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특허정보원 서비스품질 총 책임자인 이종의 관리부장은 "전 임직원의 고객만족(CS) 경영 마인드를 확립, 각 부서별로 고객전담조직을 구축하는 한편, 고객 서비스 품질기준 수립,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구축 등 전사적인 'CS경영' 추진이 이번 인증을 받게 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2004년 「2004년 한국경영품질대상」 수상과 국제적 품질기준인 「ISO 9001」 인증, 지난 해 「한국서비스대상 공공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고객의 신뢰도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 종합적인 CS 경영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세계적인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가관으로 거듭나 국가산업발전에 큰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Patent 21

2006. 01 · 02 vol. 65

등록번호 : 서울 마02901

발 행 : 한국특허정보원

발행 및 편집인 : 유 영 기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편집위원 : 이종익, 전동찬, 배성호, 노성열

기 획 : 최승중

광고문의 : 혁신기획팀(02-3452-8144)

디 자 인 : 케이이씨씨(02-572-7841)

인 쇄 : 근아인쇄

특허기술정보서비스 www.kipr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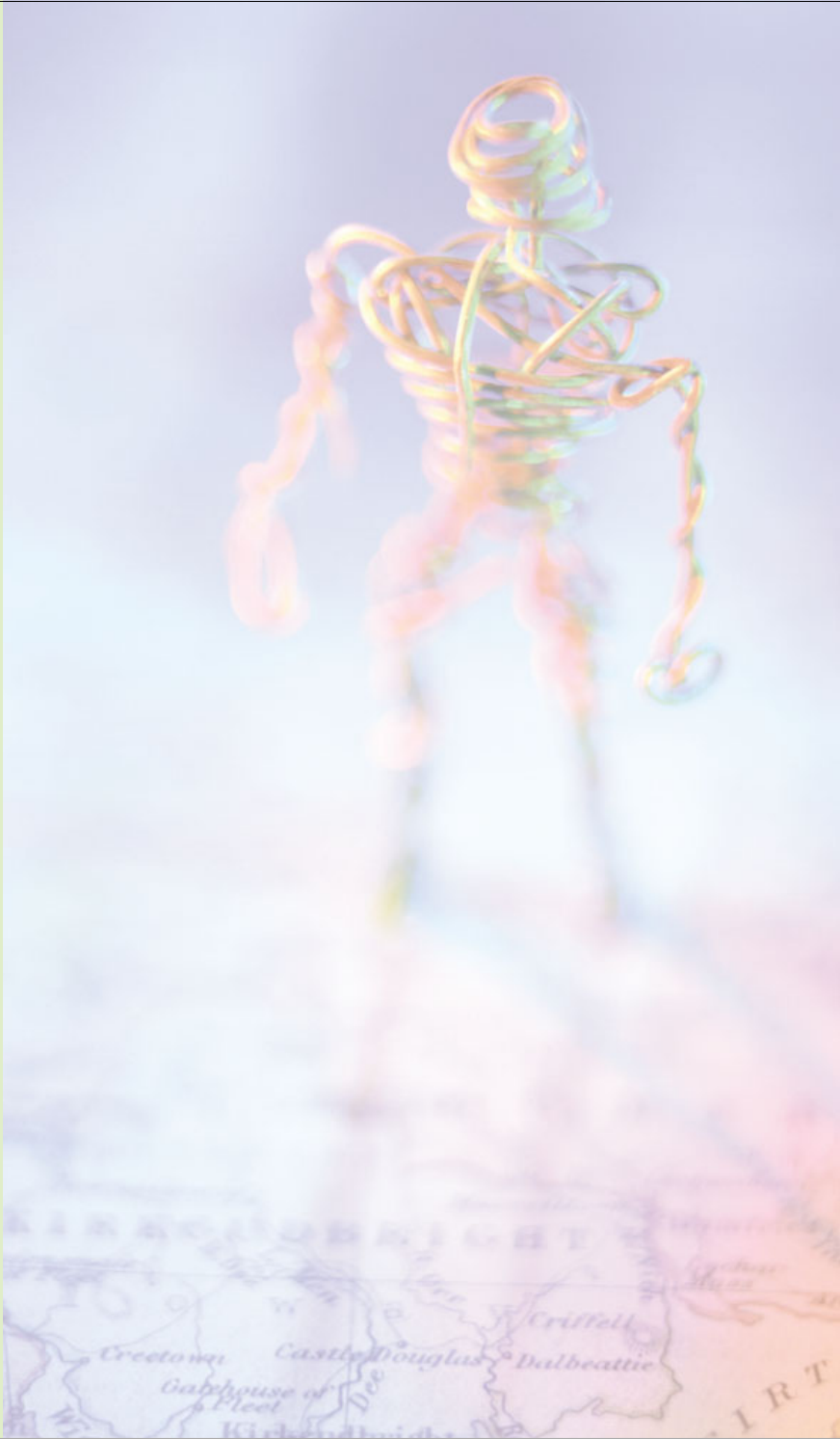
특허정보조사서비스 www.forx.org

 **한국특허정보원**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전화 : 02-3452-8144

FAX : 02-3453-5951

고객불만 신고 전화 : 080-012-7700





 **한국특허정보원**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http://www.kipi.or.kr>